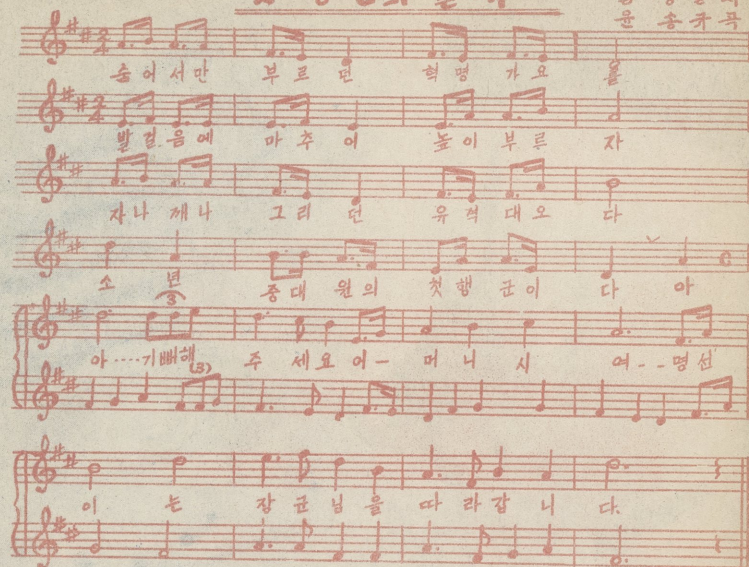
소년단

1962. 7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첫 행군의 날에

김 영철 시
윤 송규 곡

1. 숨어서만 부르던 혁명 가요를
발걸음에 마추어 높이 부르자
자나 깨나 그리던 유격대오다
소년 중대원의 첫 행군이다
아……기뻐해 주세요 어머니시여 명선이는 장군님을 따라갑니다.

2. 가시덤불 헤치며 진대를 넘는
하늘조차 분간 못 할 천고의 밀림
넘어지면 달려와 이르켜 주고
대렬을 떨어지면 부축여 주네
아, 기쁨도, 괴롬도 함께 나누는
혁명 동지들의 뜨거운 사랑.

3. 사령관 동지의 격려의 말씀
어린 몸에 새힘을 안겨 주셨네
크나큰 사랑의 어버이 손'길
소년을 키우셨네 이끄시였네
아, 언제나 우리는 수령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었네.

소년단 1962년 7호 내용

동시—숙영지를 찾아서 …………… 윤 동향 (1)
소설—쑥새'골 소년 …………… 김 룡익 (3)
그가 한 첫 토론 …………… 장 영환 (8)
레성강반에 핀 꽃 …………… 최 죽산 (10)
미국 양키놈들을 몰아 내야 한다 …………… 리 현주 (13)
눈알을 팔려는 소년 …………… (15)
동화—세 친구 …………… 김 도빈 (18)
련재 만화—피돌이 …………… 안 창수 (19)
사람은 몇해나 살수 있을가요 …………… 홍 학근 (20)
칠 보 산 …………… (21)
화약을 발명한 최 무선 선생 …………… 최 길성 (24)
척척 할아버지 …………… (26)
독 자 란 …………… (28)
보이지 않는 통신원 …………… (31)
련재 그림 이야기—도끼 장군 …………… 글 리 원우 / 그림 남 현주 (33)
방학을 맞이하며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 …… 렴 경제 (36)
유쾌한 오락실 …………… (38)
련재 만화—원쑤 같은 깡충이 …………… 남 현주 (38)
—◇—
표지 1면—관찰 …………… 촬영 김 창규
표지 2면—노래—첫 행군의 날에 …………… 김 영철 시 / 윤 송규 곡
표지 3면—움직이는 전차— 평양 룡남 중학교 물리 연구 소조 집체작
표지 4면—바다 속의 비밀을 찾아서 …………… 그림 박 춘심

(동시)

숙영지를 찾아서

윤 동향

☆ 숙영지로 가는 길

이깔나무 분비나무 하늘을 뒤덮은
여기는 청봉 빨찌산 숙영지
사령부 터전 앞에 발'길 멈추면
장군님이 반기신다 그 날의 장군님이

대원들은 모두 곤히 잠들었는데
새벽녘, 천막을 나서신 장군님
장군님은 걸으신다 병사실 두루
돌아
대원들의 잠자리 하나하나 보살피
시며

나무아지 사이로 비껴드는 달'빛
달'빛을 한가슴에 담뿍 안으시고
장군님은 천천히 발'걸음 옮기신다
짓밟힌 조국 땅의 신음소리 들으시며

이윽고 천막으로 되돌아 오시며
등잔'불 심지 다시 돋우시고
두터운 책갈피 펼쳐 드신채
밤 새워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장군님

나는 본다
래일의 진격 앞두고
가는 곳 마다에서 원쑤를 족칠
싸움의 길—승리의 길 골으시는
그 모습

우리들에게
하늘에 치솟은 궁전을 지어 주시
려고
이땅의 가장 경치 좋은 곳곳에
즐거운 야영소를 마련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희망의 날개 달아 주시고
그 무엇이든 원하는 것 선참 안겨 주
시려고

찬이슬 내리는 밀림속 여기서
동터오는 새벽을 맞으시던 장군님

아 장군님 우리 곁에 계신다.
그 언제나 한시도 잊은적 없는
그어디 가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
는
그날의 장군님
김 일성 원수님이

☆ 숙영지로 가는 길

숙영지로 가는 길은
가도 밀림 또 밀림
청봉에서 건창은 걸어 시오리
건창에서 벼개봉은 다시 시오리

진대나무 넘어서 진펄'길 건너
오솔'길 오솔'길로 행군해 나아가면
가슴에 안겨 오는 후더운 숨'결 소
리
저벅저벅 울려 오는 발'자국 소리

(빨찌산 빨찌산들 걸어 가신다
〈용진 용진 나아 가세〉노래 높이
부르며
원쑤 향해 진군하는 씩씩한 대오
무산으로 진격하는 늠름한 대오!)

정녕 그대오 앞에 걸어 가는듯
나도 함께 대렬 속에 끼여 가는듯
《용진가》부르며 행군'길 재척하면
밀림도 오솔'길을 활짝 열어 제끼
는—

여기는 백두 밀림 숙영지로 닿는
길
조국으로 진군하던 빨찌산들 행군
로
가랑비도 개이고 높이 푸른 하늘에
산이 삳이 솟는다 백두산이 솟는다

(1962.6 시초《백두산 가는 길》중에서)

소설

쏙새'골 소년

김 룡익

《무슨 이야기를 한다? 글쎄 나야 뭐 옛말을 할 줄 알아야지…》

중앙에서 소년단 야영소를 보시려 엊그제 이 곳에 오신 나이 사십이 지남즉한 아저씨는 난처한듯 잠간 머뭇거리며 주위를 휘둘러 본다. 우둥'불을 피워 놓고 한창 오락회를 벌려 놓았던 소년단원들에게 그만 붙들리여 하다 못해 짧막한 옛말이라도 해야 할 처지였다.

《가만 있자》 아저씨는 피뜩 무엇이 떠 올랐는지 인차 말을 이었다.

《그럼 아동단원 이야기를 하나 할가? 어때 그게 좋으냐?》

《네 좋아요, 어서 그 이야길 해줘요!》

학생들은 요란스레 박수를 치며 아저씨의 무릎 앞으로 바싹 다가 선다.

《…벌써 30년이 가까와오는 옛 일이니까 그 때는 너희들이 아직 세상에 태여나기 전이란다.

당시 우리가 살고 있던 쏙새'골이란 마을에는 삼십 여 명의 아동단원들로 조직된 소년 중대가 있었단다. 대개 나이는 열 다섯 안팎인 나 어린 소년들이였었지.

그 때 아동단원들은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왜놈을 반대해 싸우는 유격대나 마을의 반일 조직을 도와 삐라도 뿌리고 통신 련락도 했단다.

그런데 그 소년 중대에는 제일 나 어린 한 소년이 있지 않았겠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자는 것도 바로 그 소년이란다.

어느 날이였단다. 그 때 지방 공작을 끝마치고 부대에 돌아 가던 한 유격대원은 쏙새'골 마을 어느 길 목에서 뜻밖에 적들의 추격을 받고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였단다.

상처는 막 쓰리고 아파 왔지만 그 대원은 상처를 돌볼 새도 없었단다. 적들은 벌써 뒷덜미를 움켜 잡을듯 달려 붙은 게 아니겠니.

마침 그 때는 뽀얗게 안개가 낀 어둑새벽녘이여서 좀 마음이 놓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위험한 정황이였단다.

얼마쯤 그 대원이 앞으로 막 기여 나가는데 이번에는 맞은 편에서도 적들이 나타났단다.

정말〈독 안에 든 쥐〉격이 되고 말았지

급해 맞은 그 대원은 얼핏 생각키우는데가 있어 길옆에 무성하게 자라난 오이밭에 들어 섰단다. 그리고는 재빨리 받침'대에 올린 오이 넌출 밑에 몸을 숨기고 적들을 살펴 보았단다.

놈들은 오이밭 길 목에 와서 잠간 서성거리며 무어라 주절대는게 분명 여기서 유격대원이 없어졌다는 눈치가 아니겠니.

〈뭣들 꾸물거렷! 빨리 이곳을 수색햇!〉

장교놈인듯한 뚱뚱보가 꽥 소리를 질렀단다.

순간 아저씨는 가슴이 섬찍해졌단다. 혹시나 정보를 부대에 못 가져 가고 이곳에서 놈들과 투쟁하다 희생된다면 어쩌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 올기올기 찢기는듯 아파 왔지만 글쎄 어찌겠니. 어쨌든 놈들과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거든!》

아저씨는 잠간 말을 끊고 우등'불 주위에 떨어진 불티로 담배를 피여 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대원에게는 정말 뜻 밖의 일이 벌어졌단다. 놈들이 거의 그 대원이 숨은 오이 넌출 곁으로 다가 들려는 순간 저만큼 떨어진 밭머리에서 웬 소년의 까까중이 머리가 불쑥 나타난게 아니겠니. 그리고는 다급히 앳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 쳤단다.

〈저기루 갔어요, 저기 저기루요!〉

소년의 눈'길은 오이밭 맞은편 산속을 가리켰단다.

그러자 뚱뚱보 놈이 소년에게로 달려 들며 다짜고짜로 사내애의 멱살을 틀어 잡았단다.

〈너 정말이냐?〉

소년은 빼젓이 되뇌였단다.

〈정말이예요! 저기 저기루 빨찌산이 갔어요!〉

〈자식!〉

또다시 소년의 뺨을 갈긴 뚱뚱보는 획 몸을 돌리며 칼을 쭉 뽑았단다.

〈자 빨리 추격!〉

적들은 오이밭 맞은편 숲 쪽으로 우르르 몰려 갔지

부상을 당한 데다 심히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그 대원은 그만 정신이 핑 돌아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단다.

〈아저씨! 아저씨!〉

가까스로 그 대원이 눈을 뜨니 그 앞엔 소년이, 바로 그 사내애가 와 있었단다.

소년은 잠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이어 다닥다닥 기워 입은 웃옷 소매를 쭉 찢는게 아니겠니 그리고는 그 대원이 미쳐 손을 쓰기도 전에 그 천으로 아저씨의 상처를 동여 매 주었단다.

〈아프세요?〉

〈아니 난 아무렇지도 않다〉

…유격대 아저씨는 오이밭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단다. 날이 활짝 밝는 날이면 더 위험한 일이였거든.

〈참 고맙다! 그럼 잘 있거라〉

그 대원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별안

간 소년은

〈아저씨!〉

하고 부르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바들바들 떨리는 아래'입술을 악물고 잠자코 있지 않겠니

〈아저씬 못 가요〉

소년은 가쁜 숨을 내 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단다.

〈나와 같이 가요〉

그리고는 재빨리 그 대원의 겨드랑이 밑에 어깨를 들이 밀며 부축하는 것이였단다.

〈아니 괜찮다. 괜찮단데두〉

아무리 말려 보았으나 소년은 끝내 고집 부렸단다.

〈혼잔 못 가요. 위험해요〉

그 대원은 소년이 여간만 고맙질 않아 눈물이 핑 돌았단다. 나이는 기껏 잡아야 열 두서너 살 안 팎인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힘꼴을 쓰는지 글쎄 그 대원이 허궁 들렸단 말이다. 포동포동 살이 올라야 할 소년의 두 손이 몹시 거칠구 꽛꽛한 것이라든지 또 어깨죽'지에 퍼렇게 멍이가져 관솔처럼 굳어진 것이라든지… 어쨌든 아무 모로 보나 여늬 집 아이들과는 달랐거든.

그래서 그 대원은 얼마쯤 걷고 나서 이렇게 물었단다.

〈너의 아버진 소작농이냐?〉

〈………〉

그런데 소년은 대답 없이 내쳐 걷기만 했단다. 어깨가 쳐지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이다.

그 대원은 웬 일인지 눈굽이 뜨거워 났단다. 소년의 아픈 가슴을 공연히 건드려 놓았거든. 어디 그 때야 아버지 없는 애들이 이 소년 뿐이랴구.

소년의 아버지는 원래 그 마을의 반일회 책임자였는데 2 년 전 어느 날 삐라 공작을 하다 놈들에게 붙들려 장렬히 희생되였더란다.

그 대원은 이 사연을 알 수 없었지. 그 소년이 선뜻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으니까, 그만큼 그 애는 조련치 않은 애였거든—

〈이젠 되돌아 가거라, 난 혼자 갈 수있다니까,〉

마을에서 벗어나 뒷산 골 안으로 통한 지름'길에 들어 서자 그 대원은 이렇게 말했단다. 자기를 부축하고 걷는 소년이 여간만 가쁜 숨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였단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내돋았고 등엔 진땀이 배여 질퍽히 옷이 젖어 있었거든—

그런데 소년은 영 옹고집을 부렸단다.

〈아니예요, 어서 가요!〉

아저씨가 나중에는 좀 엄하게 타이르니까 소년은 별안간 얼굴을 붉히며 유격대원을 빤히 쳐다 보는게 아니겠니.

〈아저씬 내 마음을 몰라 줘요, 정말 몰라 줘요〉

소년은 어딘가 원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울먹울먹해서 부르짖었단다.

〈뭐?…〉

그 대원은 소년이 얼굴이 빨개져 입술을 옥물고 옷깃을 잘근잘근 씹고 있는 것을 보고 그만 코'등이 뭉클해 왔단다.

글쎄 얼마나 괴로왔으면 소년이 참아 울음도 못 내고 그저 옷깃을 물어 뜯고 있었겠니.

〈얘야〉

그 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단다.

〈가자! 다신 너에게 그런 말을 안 할테다〉

〈정말이세요?〉

소년의 얼굴은 환희에 차 있었단다.

〈아저씨! 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어깨에 멍에 메고 밭 갈기보다 난 아저씨를 부축해 가는 게 힘 들지 않아요.

지주놈은 날 얼마나 마구 부려 먹게요. 아저씨가 오이밭에 들어 온 그 어둑새벽에도 난 밭김을 매고 있었어요. 그 때 난 아저씨가 오이 넌출 밑에 숨는 걸 보았거든요〉

그리고 소년은 서두르며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그 대원이 유격 근거지에서 항상 보아 온 붉은 넥타이가 아니겠니 소년은 그 붉은 넥타이를 자랑스레 목에 매고는 부르짖었단다.

〈가요!〉

(이 얘가 아동단원이였구나!)

물어보나마나였단다. 적 통치 구역이여서 뻐젓이 붉은 넥타이를 매고 다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소년은 훌륭한 아동단원이였거든.

글쎄 바로 그런 소년에게 그 대원이 무슨 말로 타 이르며 또 무슨 수로 집에 되돌려 보낼 수 있겠니》

…우등'불이 활활 타 오른다. 이따금 장작개비가 뿌지직— 뿌지직— 타번질 때면 불티가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소년들은 손으로 턱을 고이고 다음 말

을 기다렸다. 성급한 어떤 애는 참다못해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였나요?》

《어떻게 되였는가구?》

아저씨는 다시 담배를 붙여 물며 말을 이었다.

…글쎄 그들이 막 지름'길을 벗어 날려고 하는데 뒤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리지 않겠니? 헛물을 켠 놈들이 되돌아와 다시 추격한 것이란다.

놈들은 이미 그들을 발견하고 미친듯 달려 들기 시작했단다. 숫한 총알이 바위 모서리와 나무 가지들을 으깨며 곤두 박히는가 하면 또 귀'전을 뽕— 뽕— 지나가기도 했단다.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였거든

유격대 아저씨는 그 때 이미 부상을 당한 몸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단다.

〈애야 넌 어서 피해라!〉

그 대원이 이렇게 소리 치며 싸창을 빼여 들자 소년은 다급히 그의 앞을 가로 막았단다.

〈안 돼요! 안 돼요!〉

소년의 애티 있는 두 눈엔 퍼런 불'길이 이는 것만 같았단다.

〈아저씬 빨리 범바위'골로 몸을피해요! 자 어서요!〉

그리고 소년은 그 대원이 미처 손을 쓸새 없이 몸을 홱 돌리며 옆으로 삐여져 달려 갔단다.

〈애야! 애야〉

그 대원은 처음은 영문을 몰라 다급히 소리쳤으나 다음 순간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단다.

글쎄 소년은 그 대원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을 유도한 게 아니겠니.

저만큼 달려 가던 소년의 오돌찬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단다.

〈이놈들 따라 올테면 오라〉

뜻하지 않게 잠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여서 그 대원인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단다. 그 처럼 그 소년은 유격대원을 도와 용감히 싸운 아동단원이였거든》

잠간 말을 끊고 주위를 휘둘러 보는 아저씨의 얼굴은 저으기 흥분되여 있었다.

《그러나…》 하고 아저씨는 다시 말을 이었다.

《… 그 낯모를 소년을 생각하고 유격대원은 그저 통분해만 있을 순 없었단다. 소년의 원쑤를 갚기 위해서도 그 대원은 빨리 부대에 돌아 가야 했거든.

그래 유격대 아저씨는 부상 당한 몸을 가까스로 끌며 범바위'골로 기여 오르기 시작했단다.

상처는 더욱 쑤시고 아파 왔지만 그래도 그 대원은 꾹 참고 기고 또 기였거든.

얼마쯤 이렇게 기고 있을 때 그 대원의 등 뒤에서 누군가 나직히 부르는 소리가 나지 않겠니.

〈아저씨! 아저씨!〉 하고 말이다.

그 대원은 어딘가 낯 익은 이 목소리에 재빨리 뒤를 돌아 보았더니 아 글쎄 그 소년이 꼭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내애가 생글생글 웃으며 서 있지 않겠니! 온통 물참봉이 된 소년이 말이다.

그 대원은 혹 자기가 정신을 잃지 않았나 해서 한동안 두 눈을 숨벅거리기도 했단다. 그러나 그것은 꿈도 아니였었지.

유격대 아저씨는 너무 반가워 막 가슴이 끓어 번지는 것만 같았단다.

〈네가 어떻게… 어떻게 살았어 응?〉

그런데 소년은 대수롭지 않게 또다시 생긋 웃는 게 아니겠니.

〈참 아저씨두.〉

유격대 아저씨는 그만 눈굽이 뜨거워졌단다.

〈그놈들의 눈깔은 썩은 동태 눈깔이예요. 글쎄 그런 눈깔을 가지고 어떻게 날 붙잡아요.

아저씨, 저기 저… 쏙새'골 늪이 있잖아요? 적들이 달려 들자 나는 그 때 갈'대 줄기를 꺾어 그것을 입에 문 다음 살그머니 물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갈'대 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말이예요.… 어때요? 그럴듯 하죠? 우린 이런 것도 아동단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래, 그래… 넌 아주 용한 애다〉

유격대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고 소년을 와락 부둥켜 안으려는 순간 그는 흠칠 놀랐단다.

소년의 귀밑은 상처를 입어 피가 줄줄 흘러 내리고 있지 않겠니.

〈너 부상을 당했구나!〉

그 대원이 이렇게 묻자 소년은 당황해 귀밑을 손으로 감추며

〈그저 조금… 글쎄 놈들은 마구 늪 주위를 총질하며 야단 법석을 했지요. 그 때 아마… 아니, 아니 난 아프지 않아요. 그까짓거…〉

또다시 소년은 생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단다.

〈적들은 이젠 헛탕을 치고 되돌아 갔을 거예요 아저씨! 우리 좀 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자 좀 쉬고 가자〉

…유격대 아저씨는 배낭을 풀고 그 안에서 구운 감자를 꺼내 들었단다.

〈자, 이거나 먹어라!〉

〈……〉

〈아니 애야!〉

그래도 소년은 대답이 없었단다. 참 어처구니가 없이 소년은 벌써 잠 들어 있었거든. 아마 퍽 피곤한 모양이였단다. 그래 웃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단다.

〈원 애두…〉

유격대 아저씨는 잠든 그 애의 귀여운 얼굴을 지켜 보며 사랑스럽게 머리카락을 쓰다 듬어 주었단다. 잠든 그의 고르러운 숨결을 들으니 참아 그애를 깨우고 싶지를 않았거든…

× ×

《그 후 그 애는 유격대에 입대하여 〈꼬마 대원〉이 되였단다. 바로 너희들과 같은 그 어린 나이로 그 애는 손에 총을 잡고 일제와 싸웠단 말이다.》

이야기는 끝났다.

손에 땀을 쥐고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은 다우쳐 이렇게 물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무엇이나요? 지금도 살아 계시나요?》

그 물음에 아저씨의 얼굴엔 당황한 빛이 어리었다. 학생들의 집중된 시선을 피하기라도 하듯 아저씨는 이렇게 얼버무린다.

《글쎄 이름이 뭐 뭐라더라……》

학생들은 좀체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

이 때 한 애가 옆 동무를 꾹 찌르며 나직이 속삭인다.

《그 소년이 바로 저 아저씨야, 좀 봐저 귀밑을.》

학생들은 깜짝 놀랐다. 정말 아저씨의 귀밑엔 흠'집이 있었다.

난처해진 아저씨는 이번에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 애들두… 자 이젠 들어가 쉬거라. 난 너희들에게 그저 옛말을 했다니까…》

마침 취침 나팔 소리가 요란히 울려 왔다.

그가 한 첫 토론

—황북 봉산군 마산 중학교 단 제 12 분단 김 원선 동무의 일기에서—

본사 기자 장 영 환

☆ ☆

소년단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가 나온 이후 원선 동무네 분단에서는 이를 학습하기 위하여 두 주일에 한 번씩 《분단 토론회》가 진행 되였다.

자기들의 생활과 결부시켜 모든 동무들이 다 토론에 참가하기로 되였다. 그러나 전체 동무들이 한두번씩 다 토론에 참가할 때까지 김 원선 동무만은 토론하지 못하였다.

그는 이번 뿐만 아니라 소년단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반이다 분단 모임에 참가 해서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던 그가 얼마전 분단 토론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토론 하였다.

그럼 그가 토론에 참가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의 일기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하자.

☆ ☆

1962년 5월 15일

오늘 나는 분단 위원장 동무로부터 다음 다음번 《분단 토론회》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으로 토론할 준비를 하라는 과업을 받았다. 아직 한번도 토론 해 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수가 없었다.

밤이 깊도록 《소년 신문》과 《소년단》을 뒤져 보았으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 했으면 좋을지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하긴 내가 토론하지 않아도 딴 동무들이 또 하겠는데 머….

1962년 5월 16일

아침에 학교에 나온 나는 분단 위원장 동무에게 토론을 못하겠다고 제기할가? 말가? 하고 망서렸다. 그런데 분단 위원장 동무가 먼저 나를 찾아 왔다.

그는 벌써 내 속을 꿰뚫고 있는듯이 《토론이라는건 말만 잘 하면 되는게 아니야 자기가 공부하면서 얻은 좋은 경험과 생각한 점을 그대로 말하면 돼—》라고 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참아 못하겠다는 말을 할수 없었다.

사실 내가 토론을 그만두자고 생각한것도 남에게 경험이 될만하게 학습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결심하고 달라 붙어 보자. 그 동안이라도 공부를 열심이 하며 경험을 쌓자.

1962년 5월 27일

오늘은 일요일이다. 내가 결심하고 달라 붙은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다. 그 동안 나는 어떻게 공부 했던가?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 해 듣는데 힘썼지 그리고 숙제도 꼭꼭 해 오고…, 또 무엇이 있더라? 옳지 학교에 오갈때마다 국어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았던가.

한번은 독서에 열중하던 나머지 마주 걸어 오는 기술 학교 언니와 부딪치기 까지 했지, 참 생각하면 지금도 우스워. 그런데 분단에서는 학습에 대한 나의 열성을 칭찬하여 벽보에 《공부에 열중하다보니…》라는 제목으로 소개까지 해 주었지

이젠 국어도 자신 있다. 시험을 칠레면 치라지, 열마든지, 어떤 문제든지, 겁날게 없다. 그러나 자만 해서는 안된다.

1962 년 5월 28일

오늘 처음 국어 시험에서 5점을 맞았다. 어쩌나 기뻤던지 나는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시험지를 열 번도 더 꺼내 보았다. 지난 10여 일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온 가지가지 일들이 머리에 선히 떠 올랐다.

그렇다. 이 경험을 가지고 토론하면 되겠구나! 벌써 밤도 퍽으나 깊었다.

어느 새 11시가 되였구나.

1962년 5월 30일

방과 후 분단 위원장 동무가 나를 찾았다. 그 동안 토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자는 것이였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분단 위원장 동무는 토론 준비가 잘 되였다고 기뻐하면서 거기 모인 위원들을 전체 분단 동무들로 생각하고 한 번 토론해 보라고 하였다.

나는 일어 섰다. 그런데 동무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자꾸만 울렁거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띄염띄염 몇 마디 하자 분단 위원장 동무가 앉으라고 하고는 이제부터 말하는 련습을 부지런히 해야겠다고 하였다. 《어떻게 련습을 할가?》 여기에 머리를 쓰다나니 머리가 벙벙해져서 무엇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 더욱 생각이 나지 않았다.

1962년 5월 31일

오늘 업간 체조 시간에 군중 무용이 한창 벌어졌다. 갑자기 분단 위원장 동무가 나더러 동무들에게 군중 무용 《총동원가》를 배워 주라고 하였다. 나는 무용을 무척 좋아 했기 때문에 동무들 속에 서슴없이 뛰여 들어 한 동작씩 설명하면서 열심이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분단 위원장 동무는 그 무용을 나보다 더 잘 알면서 왜 나더러 배워 주라고 했을가? 참 모를 일이다.

1962년 6월 5일

오늘 방과 후 분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있었다. 동무들은 서로 앞을 다투며 일어섰다. 그때마다 나는 일어날가 말가 망서리면서 마음을 죄였다. 이런 때 분단 위원장 동무가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눈짓을 하였다. 그러자 옆에 앉았던 반장 동무가 자꾸만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 났다.

나는 지난 보름 동안 학습에서 얻은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난 날 소년단 생활에서 열성을 내지 못했던 잘못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소년단원의 의무를 지켜 분단 사업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분단 위원장 동무가 나더러 토론을 참 잘했다고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분단 동무들 모두가 《원선이 처럼 공부하면 누구나 다 최우등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칭찬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하늘에라도 오를듯 싶었다.

이제 와서야 나는 분단 위원장 동무가 왜 나더러 동무들에게 무용을 배워 주라고 했으며 또 동무들 앞에서 《소년 신문》을 자주 읽게 했는가를 알게 되였다.

나는 모든 일에 더욱 자신이 생겼다. 하면 못할 일이 정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나는 앞으로 소년단원의 의무를 지켜 공부도 더 잘하고 단, 분단, 반 사업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겠다.

례성강반에 핀 꽃

—황북 금천군 금천 중학교 단 제 5 분단 김 숙자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최 죽산

한 장의 유리

분단 동무들이 다 돌아 간 교실은 물을 뿌린듯 조용했습니다. 오후부터 갑자기 불기 시작한 바람에 창문들이 덜컹거렸습니다.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가?》 숙자는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창문들을 꼭꼭 닫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가 교문을 나섰을 때 바람은 아까보다 더 세졌습니다. 아빠트들에서는 바람에 여닫기는 창문들을 바삐 닫느라고 야단들이였습니다.

순간 숙자에게는 아무래도 학교의 유리가 걱정되였습니다.

(꼭꼭 닫느라고는 했지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한 숙자는 가던 길을 되돌아서 급히 학교로 달려 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 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꼭꼭 닫아 놓았던 창문 하나가 열려 《탕탕》 바람에 여닫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숙자는 막 뛰여 가 두 손으로 창문을 꼭 붙잡았습니다. 바람에 문'고리가 빠져 달아 났던 것입니다.

사위를 둘러 봐야 문'고리를 비끌어 맬 노끈이라곤 없었습니다.

숙자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기 운동화 끈을 풀어 창문 고리를 단단히 비끌어 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창문들을 살피려고 돌아섰습니다.

순간 《획》 하고 몰아치는 세찬 바람에 창문 하나가 열렸다 닫기면서 유리 한 장이 털렁 떨어지는 것이였습니다. 《앗》 앞으로 뛰여 나간 숙자는 엎어지면서 두 손으로 유리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이 섬짓 했습니다. 유리의 가장자리에 다아서 손이 베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피 흐르는 손 보다도 유리가 깨여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유리를 다시 넣으려고 하니 유리창 가름'대에는 몇 개의 못 밖에 없었습니다. 문득 그의 머리속에는 저고리에 꽂아 가지고 다니는 빈침이 생각났습니다. 숙자는 밖에서 가져 온 돌로 빈침을 끊어 못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삐꺽》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아니 뭘 하느라고 아직 집엘 안 가고 있어?》

《………》

창문과 숙자를 번갈아 보시던 선생님은 곧 모든 것을 알아 차리시고 《숙자는 참 훌륭하구만!》 하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숙자의 일'손을 거들어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례성강반에서

작년 여름이였습니다. 분단 위원장인 숙자는 3 반 동무들과 함께 자주 앓아 결석을 하는 정옥이네 집을 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3 반 동무들은 정옥이네 집에서 그를 돕기 위한 반 모임을 갖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한낮에 와서 멎더니 오후에는 해까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례성강의 물은 갑자기 불었습니다.

《내가 정옥이네 집에 먼저 갈테니 가서 영자를 데리고 와》.

영자네 집은 좀 동떨어진데 있어서 동무들을 그리로 보내고 숙자는 논'두렁 질음'길로 걸었습니다.

길 량쪽에는 푸르싱싱한 모들이 서로 키돋음하듯 자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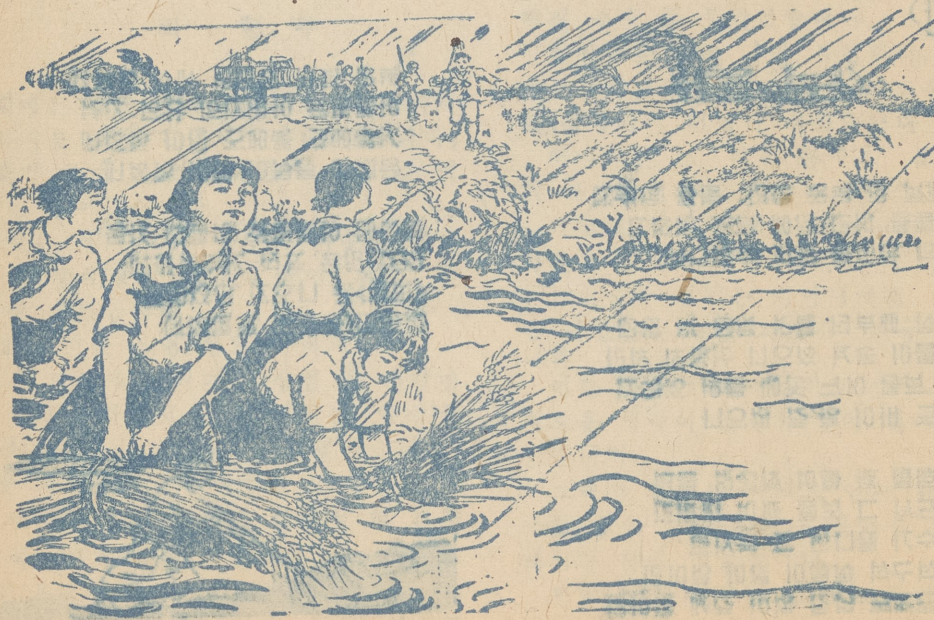
풍년 질 가을을 생각하며 례성강 쪽을 바라 보았을 때였습니다. 강물 우에 거뭇거뭇 무엇인가 떠 내려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뭘가?》.

언덕에서 뛰여 내린 그는 강'가로 달음질쳤습니다.

강'가에 다달은 숙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조합원들이 가을해 놓은 밀'단들이 물에 떠 내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 어쩔 바를 모른 숙자는 어린애 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강'가를 오르 내리며 《밀'단이 떠 내려 가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위를 둘러 봐야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는 것은 소년단원의 의무다. 다문 몇 단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건져 내야 한다.)

숙자는 옷을 걷어 올리고 첨벙 물 속에 뛰여 들었습니다.

그는 물이 얕은 데 들어 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밀'단을 들어다 언덕 우로 힘껏 던졌습니다. 몇 단을 나르지 못해 벌써 물에

젖은 옷은 몸에 착 들어 붙어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하였습니다.

밀'단을 안고 언덕 우에 나온 숙자는 이번에는 겉 옷을 벗고 물 속에 뛰여 들었습니다.

숙자가 또 다시 떠 내려 가는 밀'단 하나를 잡아 들고 나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바닥이 선듯하였습니다. 돌 뿌리에 베여진 것이 틀림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떠 내려 가는 밀'단을 버리고 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픈 것도 참고 힘껏 밀'단을 그러 안았습니다. 몸이 지친 데다 물 밑이 미끄러워 걸핏하면 넘어지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을 먹기가 일수였고, 겉어 쥐였던 밀'단들이 다시 떠 내려 갔습니다. 그는 엎어지면 일어나 떠 내려 가는 밀'단들을 또 따라 가 잡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벌써 수 많은 밀'단들을 건져 냈습니다.

손'수건으로 동여 맨 발에선 자꾸 피가 흘러 내렸고 견딜 수 없이 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 앞에는 아픔보다 알곡 증산을 위해 힘 쓰시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과 그 속에 끼여 일'손을 돕던 지난 날의 일들이 선이 안겨 왔습니다.

강물은 숙자의 마음을 알아 주지 않는 듯 자꾸만 밀'단을 밀고 가기만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밀은 건져야 한다.) 숙자는 다시 물 속에 뛰여 들었습니다.

숙자가 이렇게 한참이나 밀'단을 건져 내고 있을 때 반 동무들이 뛰여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첨벙첨벙 물에 뛰여 들어 밀'단을 건져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자동차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왔습니다. 조합원 아저씨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이였습니다. 《원 이런 기특한 일이라구야!》 차에서 내린 조합원들은 이렇게 감탄하며 모두들 다리를 걷어 올리고 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날 소년단원들과 조합원 아저씨들은 약 500 여 단이나 되는 밀을 무사히 건져 냈던 것입니다.

일을 다 끝내고 작업반장 아저씨는 《참 수고들 했다. 너희들이 아니였더라면 피땀으로 지은 농사가 헛 될번 했다.》 고 하며 숙자의 잔등을 두둘겨 주며 칭찬하셨습니다.

(우화)

《보 물》

그 옛날 한 늙은 농민, 죽음 앞두고
아들들을 머리 맡에 불러 앉히고
마지막 유언을 들려 주었다네

조상 때부터 물려 받은 저 땅엔
보물이 숨겨 있으니 귀중히 하라
그 보물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
나도 바이 알'길 없으나

너희들 힘 들여 찾으려 들면
반드시 그 보물 캐여 내리라
추수가 끝나면 그 즉시로
구석구석 살살이 갈아 엎어라
한군데도 남김 없이 깊게 갈아라

늙은 농민 드디어 세상 떠났네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 지켜
가을에도 봄에도 갈아 엎었네
온밭을 살살이 갈아 엎었네

덕분에 아들들은 이듬해 가을
많고 많은 곡식 거두었다네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유언 깨달았네

불행한 소년들

남조선에서

미국 양키놈들을 몰아 내야 한다

리 형 주

영희네는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동에서 구멍가게를 보며 근근히 살아 갔습니다.

영희가 국민 학교 3 학년에 올라 간 여름 어느 날이였습니다.

그 날은 어찌나 더웠던지 마분지 통에 넣어 둔 양재'물이 녹아서 물이 되여 줄줄 흘러 내렸습니다.

이것을 지켜 보던 영희 아버지는

《밭은 밑천에 이러다간 상점 문 처닫겠다.》 하고 말하면서 녹아 내리는 양재'물을 사이다병 두 개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 세 식구가 안'방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가게 쪽에서 혀 꼬부라진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전기'불이 오지 않아 초'불 한 자루가 희미하게 타는 가게를 내다 보니 거기에는 술에 곤죽이 된 미군 양키 두 놈이 양재'물 병 둘을 가지고 당기고 밀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문을 열고 나갈 사이도 없이 놈들은 그걸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이튿날 경찰서에서 찾는다기에 나갔던 영희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애무한 《죄》를 쓰고 징역을 갔던 것입니다.

미국 양키들이 술인 줄 알고 양재'물을 마시고는 즉살을 한 것이 《죄》가 되여 영희 아버지는 징역 살이하고 구멍가게는 몽땅 털리게 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희와 어머니는 천막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영희를 공부시키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떡 장사도 하고 한편 콩나물 장사도 하면서 어머니는 그의 학비를 마련하군 했습니다.

영희도 밤이면 어머니와 함께 떡을 치고, 빚고는 눈도 붙이지 못하고 학교에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 피 나는 노력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월사금을 물고 나면 사친회비, 그 다음에는 학교 수리비, 이름도 모를 수 많은 잡부금이 련달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바쁜 틈에도 삯바느질까지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던 영희를 공부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일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영희는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돈 내란다는 말을 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어린 가슴에도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애처로운 생각이 앞서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자기도 남자 학생들처럼 깡통 같은 것을 주어다 팔아서 학비를 보태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미군 병사 둘레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 깡통이 많다는 것이였습니다.

불행한 소년들

그 날 공부가 끝나고 영희는 남학생들 뒤를 따라 갔습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빈 통조림 통들을 주어 모았습니다.

여기에 정신이 쏠린 그들은 양키놈들이 조롱하듯 하는 휘파람 소리도 듣지 못했고, 쥐고 있던 사나운 개의 사슬을 놓아 주는 것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자즈러지듯 짖는 개 소리에 애들은 놀라 뛰였습니다. 영희도 뛰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뒤떨어졌습니다.

송아지만큼이나 큰 개가 영희의 어깨에 두 앞'발을 척 걸쳤습니다.

그 다음 영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개에게 물려 옷은 갈기갈기 찢기고 살'점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개를 풀어 놓은 미군놈들은 코'노래를 부르면서 개가 잘 했다고 개의 볼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영희는 병원에도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막에 누워서도 그는 《미군 나가라》고 웨치는 노한 함성을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양키들 물러 가라〉고 일어들 났구나, 대구에서도 일어났구, 모두가 다 이렇게 일어나면 그것들이 어디다 발을 붙이겠니. 어서 그놈들을 몰아 내야지》.

학생들의 반미 시위를 보고 딸에게 알리려고 뛰여 들어 온 어머니는 막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놈들이 나가면 나도 마음 대로 학교 다니겠지요 어머니?! 아버지도 나오시구…》

창백한 영희의 얼굴에도 새 기운이 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제를 몰아 내자!

(시)

김 혜 관

땅을 찾자!

한해 농사 짓다 말고
쫓겨 가는 북이네 집
해 다 진데 이제 떠나
어디로 가시려나

피땀으로 가꾼 밭에
미국 땅크 모여 드니

그럼은요! 가지 말고
저놈들을 쳐부시자!

어디 가나 두 발 가진
승냥이가 원쑤라오!

물 방 아

방아 방아 물방아
잘도 찧네 쿤덕쿵

흰눈 같은 옥백미
열 섬 백 섬 찧어도
옥순네는 끼마다
풀죽을 먹고 사네

방아 방아 물방아야
옥백미를 찧다 말고

가슴마다 맺힌 원한
한데 모아 쾅! 쾅쾅!

인간 백정 미제놈의
대갈통을 찧자구나

토이기에서

눈 알을 팔려는 소년

얼마 전 토이기의 한 신문 《레르주만》에는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나는 눈알을 팔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돌아 가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페'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알을 팔아 그 돈으로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려 합니다》.

이 광고를 신문에 낸 사람은 토이기의 나 어린 소년인 파크레티나 킬리차였습니다.

그는 토이기의 항구 도시 이스탐불에서 멀지 않은 산촌에 살았습니다.

그의 온 식구들은 낡은 틀을 방 한 가운데 놓고 주단을 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가 시장에 내다 팔아 끼니를 이어 갔습니다. 킬리차는 아버지를 도와 드리면서 녀동생과 함께 마을의 소학교에 다녔습니다. 킬리차의 가정은 가난하지만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처럼 무서운 불행이 닥쳐 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주단을 팔려 갔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업혀 돌아 왔습니다.

아버지가 입은 흰 옷에는 피'자욱이 랑자했습니다.

《죽일 놈들! 뼈를 갈아 마셔도 이 원한을 다 못 풀겠구나, 이 원쑤놈들…》

아버지는 킬리차의 손목을 쥐고 이 말 한 마디를 남기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양키들의 총에 맞았던 것입니다.

고개'길을 넘어 가던 소년의 아버지를 보자 미친듯 찝차를 몰아 가던 양키들은 차를 멈추고 내리더니 한 딸라를 걸어 놓고 킬리차의 아버지를 목표물로 삼아서 총 쏘기 내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자 킬리차는 온 식구를 먹여 살리는 호주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월사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동생도 그도 학교에서 쫓겨 난 지 오랬습니다.

어머니와 킬리차, 그리고 그의 동생은 밤을 밝히며 주단을 짰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이는 방안에서 하루 종일 해'빛도 못 보고 일'손을 놀리는 그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희고 수척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킬리차에게도, 그리고 동생에게도 그것은 끝 없이 힘 들고 고통스

불행한 소년들

려운 나날이였습니다.

끝내는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쓸어졌고 련이어 동생이 또 눕게 되였습니다.

킬리차 혼자서 주단을 짜는 돈으로는 약 값은커녕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병은 점점 더 심해만 갔습니다.

생각다 못해 킬리차는 눈알을 팔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다 광고를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알을 팔겠다고 광고를 낸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니 그냥 앉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킬리차는 이스탐불 시내를 돌아 다녀 보았습니다. 병원마다 피를 팔려 온 사람, 눈알을 사라고 온 사람들로 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사람들의 《자선 병원》을 찾아 가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 병원의 미국 사람들은 《천사》 같이 어질고 《선량》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였던 것입니다.

《눈알을 팔겠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 소년을 귀찮은듯 지켜 보던 미국 의사는 킬리차의 눈'두덩을 마구 되는 대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원에게 뭐라고 일렀습니다.

《그래 얼마 받을라고 하나? 다른 사람들 눈하고 같은 값은 못 줘, 한 삼분의 일 값으로나 쳐서 팔겠거든 팔구… 눈알이 영양 실조가 돼서 못 쓰겠대.》

간호원의 말이였습니다.

《그래도 내 눈은 잘 뵈고 눈'곱 한 번 끼여 본 적도 없는데…》

울먹울먹하는 킬리차의 대답이였습니다.

《그럼 팔지 않겠거든 어서 가고…》

그 미국 녀인은 킬리차를 떠 밀어 내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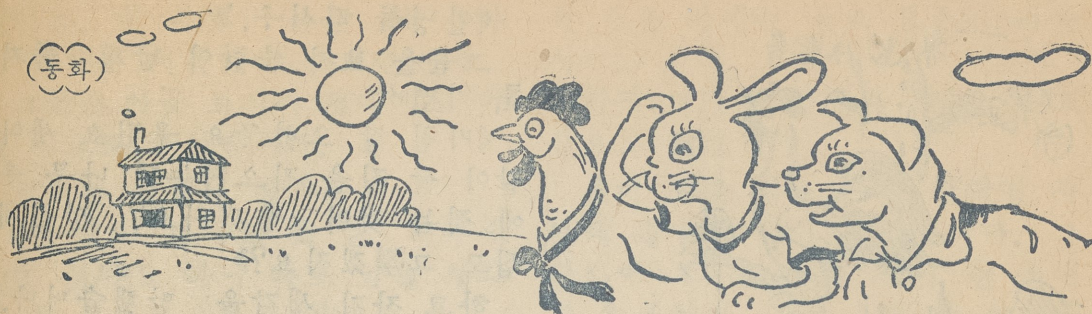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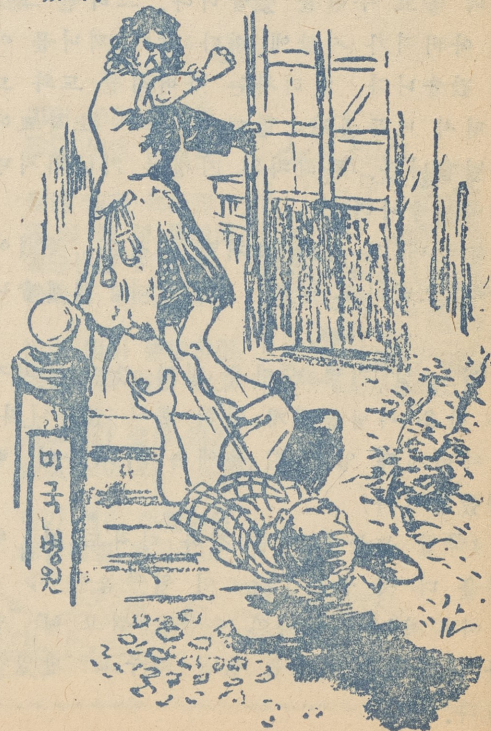
그 소리에 킬리차는 정신이 번쩍 드는듯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쑤! 미국 양키들을 믿고 내가 여길 찾아 오다니.

원쑤! 원쑤! 미국 양키들이 바로 나의 원쑤고 우리의 원쑤다).

× ×

미제는 이 나라의 지배층과 결탁하고 새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 기지를 설치해 놓고 제멋 대로 이 나라 인민들을 억누루고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나라 인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

(동화)

세 친구

김 도 빈 그림 채 용 찬

《우리 말이야, 집을 잘 짓고 한 집에서 노래하며 즐겁게 살아 보자》.

이렇게 의논이 되자 수탉과 개와 토끼는 집을 어디다 어떻게 지을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탉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탉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 우에 집을 짓자우. 그러면 시원도 하고 여우도 얼씬 못할 게 아니냐.》

하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 가서 목을 길게 뽑고 가슴을 쑥 내밀면서

《여러분, 그렇지요? 꼬끼—》

하고는 장한듯이 나무 가지 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무에 오를 줄 모르는 개와 토끼는 수탉에게 어서 내려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수탉이 내려 오자 토끼는 자기 등 뒤의 언덕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땅'굴을 파고 땅 속에 집을 짓자구나. 그러면 무더운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도 뜻뜻해서 살기 좋단다.》

토끼는 땅을 박박 팠습니다.

그러나 개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살기 좋은 데는 마당이야, 마당에다 집을 지으면 드나 들기도 좋고 또 새끼를 기르기도 좋단다. 그러니 마당에다 짓는 것이 제일이야.》

개는 마당에다 금까지 그으면서

《이 바로 지으면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도 수탉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편할 것만 생각하며 제 고집만 썼습니다.

수탉은 입을 뾰족하니 내밀고서

《나무 꼭대기에 지으면 마음이 상쾌해진단 말이야. 난 딴 데 짓는 것은 반대야.》

토끼는 샐쭉해서 뺑뺑 쏘는듯이

《땅 속에 집을 지으면 집이 든든하고 좋단 말이야. 느티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박은 것을 봐도 알 수 있잖아. 난 수탉의 말이 옳다고 할 수가 없어.》

개는 눈을 휘번쩍이면서

《나무에 지으면 바람에 무너지기 쉽고 땅 속에 지으면 어둑컴컴

해서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 땅 우에 터를 닦고 멋들어지게 지어 보자. 어때 내 말엔 틀린 데가 없지.》

이렇게 제각기 나무에 짓자거니 땅 우에 세우자거니, 제 주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끝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헤여져 살고는 싶지 않아서 수탉은 느티나무만 쳐다보며 서 있고, 토끼는 언덕만 바라보며 웅크리고 앉아 있고, 개는 마당에서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산 넘어의 동리에도 수탉과 개와 토끼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가던 길에 이 곳을 지나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들 하지우.》

그들을 보자 수탉이 날개 쭉지를 치면서

《마침 잘 오셨군요. 우린요 셋이 같이 살 집을 지으려는데 나무 우에 짓는 것이 좋겠지요? 당신네 집도 그렇겠지요?》

하고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답이 나오기 전에 토끼가 깡충 앞으로 나서면서

《땅'굴을 파면 손질할 것도 별로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땅'굴집이 제일이지요. 당신들도 땅 속에 지으셧지요? 예?》

개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짓고 사시는지요.

물론 제각기 저 좋은 대로 딴 집에서들 사시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땅 우에 짓고 사실테지요?》

이 말을 듣고 산 넘어에서 온 수탉이 먼저 이곳 수탉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개와 토끼들을 위해서 집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가 하고 생각해 보셨는가요?》

꼬뚝 세웠던 머리를 숙으리면서 수탉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느티나무만 생각했어요. 내 버릇이 높은 데 올라가서 자는 버릇이 있으니깐요.》

그들은 이곳 토끼와 개에게도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토끼는 얼굴이 벌개서

《난 올라 가지도 못 할 나무에 자꾸 짓자고 하니 나도 남을 생각할 새 없었소.》라고 말하고

개는 숨을 깊이 들이키면서

《언제 남을 생각할 틈이 있어야지요. 자꾸만 땅에 세우는 것이 좋다고만 생각하다나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만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는 집으로 한 번 가 보십시다.》

이리하여 수탉과 개와 토끼들은 산 넘어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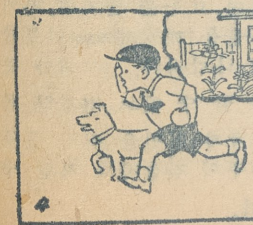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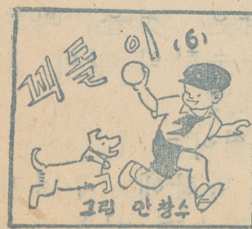
집은 굉장했습니다. 땅 속에도 방이 있는 이층 집이였습니다. 층층대도 있어서 웃층, 아래층, 지하실, 어떤 방이나 누구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탉은 기뻐서 가슴을 내밀면서 목을 곧추 세우고 본때있게 꼬끼! 하고 소리쳤습니다. 개는 껑이껑이 하며 머리를 갸웃거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읍시다. 그런데 지을 바에는 돌로 튼튼히 지읍시다.》

하며 이들은 마치와 정을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셋이 힘을 뫃으니 눈 깜빡할 사이에 훌륭한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후부터는 셋이 한 집에서 형제처럼 다정스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과학자들에게

사람은 몇해나 살 수 있을가요?

의학 과학원 원장 박사 홍 학 근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가요? 이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문제입니다.

16 세기, 우리 나라의 탁월한 의학자인 허 준 선생은 벌써 그 때 《동의 보감》이란 책에 사람은 120 살은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이 더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125~150 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오래 살자면 어려서부터 항상 명랑하고 유쾌하게 지내야 하며 모든 일에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명랑하고 유쾌하지 못하고 우울하거나 침울하면 신경 계통 특히 대뇌 피질이 곧 피로해져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오래 살자면 로동, 즉 일을 즐겨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지주놈의 착취로 말미암아 로동이 사람을 쉬 늙게 하지만 우리 사회주의 하에서는 로동이 행복과 장수의 밑천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로동을 즐기고 로동에 힘써 참가하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항상 체육을 즐기며 해'별에 몸을 태우며 아침 저녁 랭수 마찰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생활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려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때문에 목욕, 리발을 자주하며 입안과 이'발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옷도 깨끗이 입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년단원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명랑하고 유쾌하게 지내며, 로동을 즐기며, 자기 몸과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려 나갑시다. 그래야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아십니까?)

☆세계의 인구

지구의 1억 3천 536만 평방 킬로 메터의 넓은 땅 우에는 30 억 1천 700만(1961 년 현재)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구는 10억 302만 명, 전세계 인구의 33.24%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인구는 약 6억 3천 500만 명으로서 세계 인구의 21 %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타 나라(그 대부분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나라들이다) 인구는 약 12억 3천 400만 명, 세계 인구의 40.9 %나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해방되지 못하고 식민주의 억압과 착취하에 있는 나라들의 인구는 불과 약 7천 600만 명으로서 세계 인구의 7.5 %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세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큰 도시들이 몇 개나 될가요?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세계에 모두 79 개 있습니다.

그 중 아세아에 38 개, 구라파에 23 개, 북미주에 7 개, 남미주에 6 개, 아프리카에 3 개, 호주에 2 개가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장 많은 나라로는 중국(15 개), 일본(6 개), 쏘련(5 개)입니다.

(실험해 보세요)

온도계로 산높이를 재일수 없을가?

철호 동무네 학교에서는 여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30 리나 되는 곳에 있는 거미산에 등산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산 높이가 얼마나 될가?》

길훈이가 말하자 동무들은 저마다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재호가 배낭에서 남비를 꺼내더니 물을 쏟아 놓고 모닥불에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재호는 온도계로 물의 온도를 재였습니다. 물은 섭시 96 도에서 끓었습니다.

재호는 수첩에 적어 넣은 표를 보며 비례 계산을 끝마치더니 《약 900 m》야 하는 것이였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의아해 했습니다.

재호가 리용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산의높이(m)	0	500	1,000	1,500	2,000	3,000	4,000	6,000	1,0000
압력(수은주의높이)	76	71.6	67.4	63.41	59.61	52.57	46.22	40.48	19.81

(표 2)

물의 끓는 온도	기압(수은주의 높이)
101°c	78.77cm
100°c	76cm
98°c	70.7
96°c	65.75
94°c	61.1
92。c	56.7
90。c	52.55
88°c	48.7

※ 재호는 표 1과 2를 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표 1에서 수은주가 67.4 cm에서 1000 m였습니다.

표 2에서 물이 섭씨 96 도에 끓었을 때는 수은주가 65.75 cm였습니다.

그것을 리용하여 67.4Cm: 1000=65.75cm: x와 같이 문제를 세웠습니다. 즉

$$\frac{1000 \times 65.75}{67.4} = 900$$

(이것을 아십니까?)

전기 기관차는 증기 기관차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가?

전기 기관차는 증기 기관차보다 여러 가지로 더 좋습니다.

△ 전기 기관차는 증기 기관차보다 끄는 힘이 1.5 배나 더 세기 때문에 그만큼 짐을 더 나를 수 있습니다.

△ 증기 기관차는 겨울에 날이 차면 혹 증기가 잘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전기 기관차는 오히려 겨울에는 전동기가 잘 식으므로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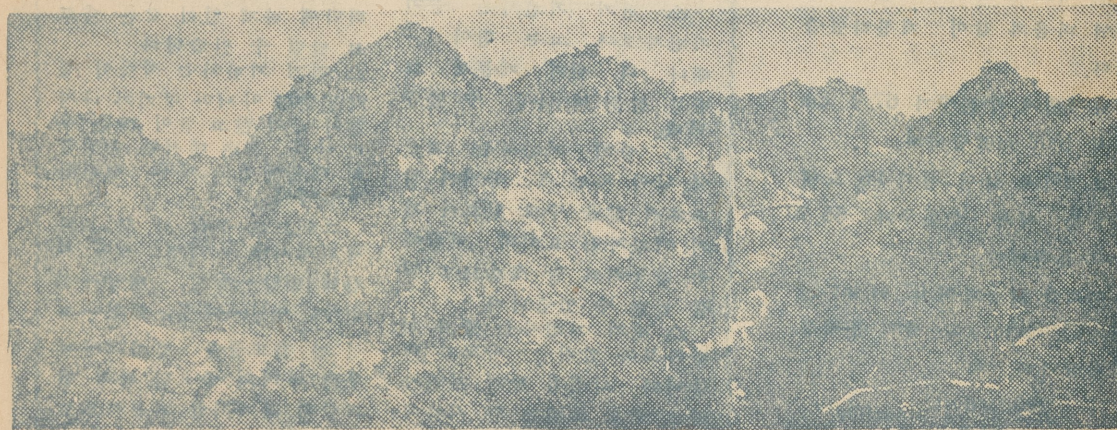
△ 전기 기관차는 증기 기관차보다 달리는 속도가 빠릅니다. 최신식 증기 기관차라고 해도 그것은 한 시간에 120 km 이상 달리지 못하지만 전기 기관차는 331 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기관차는 올리막과 내리막에 관계 없이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 전기 기관차는 석탄이 절약될뿐만 아니라 연기가 나지 않아 산이 많고 굴이 많은 우리 나라 같은 데서는 손님들의 려행에서도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평양—청진, 평양—신의주, 평양—개성, 회천—고인 간 철도들을 전기화하여 우리 나라의 중요한 간선 철도들의 전기화를 기본적으로 끝낼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칠보산

소년단원 동무들! 이번 호에는 예로부터 《함북 금강》으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명승—칠보산(663 m)을 구경하기로 합시다.

원라선을 타고 고참역에서 내려 명천읍을 지나 동해 바다 쪽으로 8 km 가량 더 가면 칠보산의 어구인 청학동 반달령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반달령에 오르면 방금 피여 난 목화송이 마냥 하얀 바위들이 록음 속에 솟아 있는 아름다운 칠보산이 한 눈에 안겨 옵니다.

이 아름다운 칠보산엔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용감히 싸운 이 지방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 이야기도 있으며,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시기 미국놈들의 전화선을 끊으며 삐라를 뿌려 놈들을 가슴을 서늘케 한 더 대산 소년 근위대의 빛나는 투쟁 이야기도 있습니다.

칠보산은 산골짜기, 산 등성, 바다의 아름다움에 따라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누어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먼저 내칠보의 유명한 오봉산부터 보기로 합시다.

오봉산

유명한 개심대에 오르면 하늘 아래의 아름다움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놓은 듯한 오봉산이 한 눈에 안겨 옵니다.

오봉산은 다섯 개의 묘한 봉우리들로 되여 있습니다. 낟가리처럼 생긴 로적봉, 종을 거꾸로 달아 놓은 듯이 보이는 종각봉, 수 많은 중들과 부처들이 렬을 지어 가는듯이 보이는 라한봉과 천불봉, 수 많은 사자가 웅크리고 앉은 듯이 보이는 만사봉 등은 볼수록 더욱 묘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더 즐겁게 해 줍니다. 오봉산을 지나 금강봉, 금강대, 금강담의 구룡 폭포까지 오면 내칠보는 끝나고 외칠보가 시작됩니다.

오봉산

만물상

외칠보의 가전동에 이르면 학이 날개를 펼치고 방금 날듯한 모습을 한 학무대와 수백 수천의 새들이 날아 도는 모양을 이룬 봉서암을 보는 것도 좋지만, 세상 만물의 모양을 다 갖춘 듯한 만물상을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새가 방금 앉은 듯한 모습, 성난 범이 앞으로 달려 오는 듯한 모습, 토끼와 다람쥐가 재미나게 노는 듯한 모습 등 마치 금강산의 만물상을 생각케 합니다.

만 물상

가정동에서 갈라진 길로 새길령을 넘으면 유명한 황진리 온천이 있습니다. 황진골을 따라 바다'가로 나가면 아름다운 해칠보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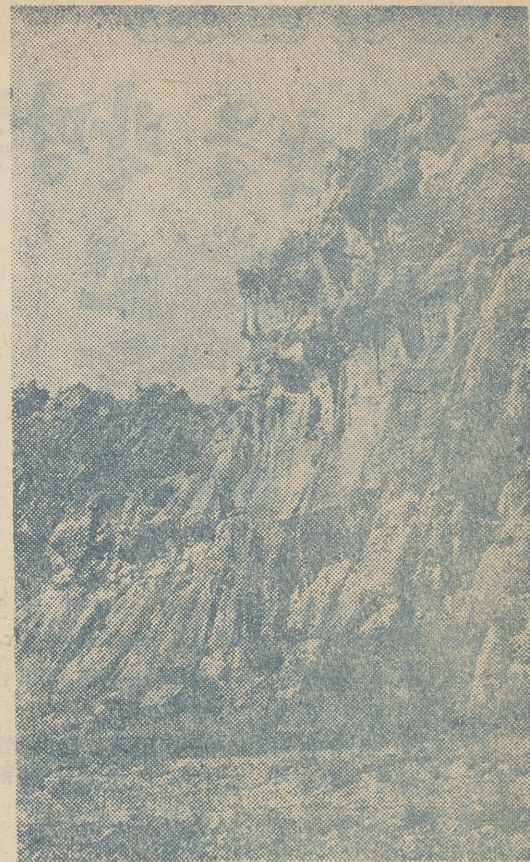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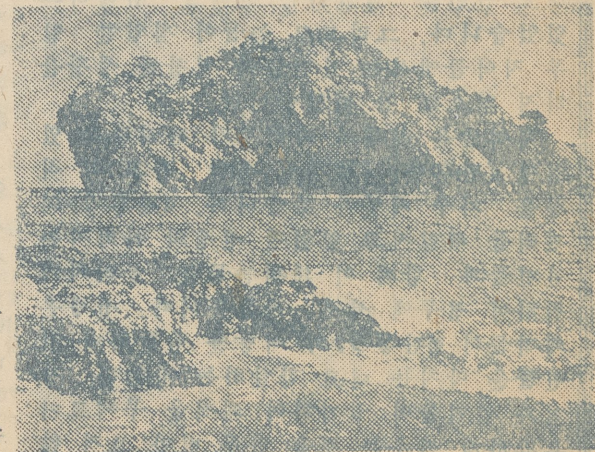
해칠보의 송도

동해의 푸른 물'결이 밀려 와 바위에 부딪쳐 꽃보라를 흩날리듯 부서지는 해칠보—송도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송도는 자그마한 섬으로, 이름 그 대로 소나무가 우거진 바위입니다.

자유로이 날아 예도는 갈매기와 물오리 떼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섬 가운데로 가로 뚫린 룡굴의 달'밤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해칠보 송도

(우리 나라 명인 이야기)

화약을 발명한 최 무선 선생

최 길성

최 무선 선생은 우리 조선 인민이 낳은 훌륭한 애국자이며 뛰여 난 과학자였습니다. 최 무선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636년 전인 1326년에 탄생하였습니다.

최 무선 선생은 1395년에 일흔 살의 일생을 끝마칠 때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화약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대포를 발명하는데 있는 힘을 다 하였습니다.

최 무선 선생의 소년 시절이였던 13 세기 전반기에는 왜적놈들이 자주 우리 나라 해안에 침입하여 떼를 지어 돌아 다니면서 인민들의 물건을 빼앗고, 닥치는 대로 인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놈들이 침입한 일부 지역들에서는 인민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왜적들은 선생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었던 《관홍창》(국가의 식량 창고)의 식량을 자주 빼앗아 갔습니다. 《관홍창》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선생의 아버지는 인민들과 함께 이 왜적놈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선두에 서서 싸웠습니다. 선생은 왜적들이 《관홍창》의 식량을 략탈하며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비참한 장면과 인민들이 궐기하여 왜적을 무찌르며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의 소년 시절은 바로 이와 같이 애국적 인민들이 한결 같이 단결하여 원쑤와 영용하게 투쟁하고, 사람마다의 가슴속에 위대한 애국심이 열렬히 불타고 있었던 투쟁의 시기였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던 선생의 가슴에는 왜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은 왜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발명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하였습니다. 선생은 자기의 이와 같은 훌륭한 결심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무들이 놀고 있을 때에도 한시를 다투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선생의 훌륭한 결심은 날이 감에 따라 점점 이루어져 갔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장래 훌륭한 과학적 발명을 이룩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나갔습니다. 또한 선생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지키며 동무들을 사랑하고 돕고 이끌어 주는 데도 동무들의 모범이였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는 폭발력이 강한 그런 화약을 아직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화약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화약의 중요한 원료였던 염초를 얻어 내는 문제였습니다. 염초는 부엌의 재, 변소'간의 흙 등에 많이 포함되여 있는 폭발력이 대단히 강한 원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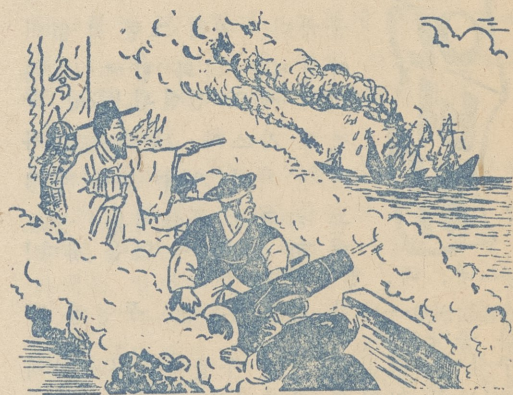
염초를 얻어 내기 위한 선생의 연구 사업은 소년 시절부터 시작되였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염초를 얻어 내는 법을 설명한 책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은 우선 염초를 얻는 방법을 쓴 책들을 얻으려 무척 힘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만족할만한 자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염초를 대대적으로 채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겨우 알게 되였을 뿐입니다. 최 무선 선생은 꾸준히 연구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당시 개성을 찾아 오는 중국의 학자, 상인들에게서 염초를 채취하는 방법을 쓴 책을 얻으려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그 방법을 물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최 무선 선생은 중국의 학자, 상인들이 많이 찾아 오는 례성강 어구에도 매일 같이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초 채취법을 잘 알려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리유는 당시 중국의 봉건 정부가 염초 채취법의 비밀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만일 그 비밀을 외국에 알려 주는 사람은 처벌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을 알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곤난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매일 실험실에서 염초 채취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373년 10월 48 세 때에 드디여 염초를 얻어 내는 방법을 알아 내였습니다.

이리하여 선생은 아주 폭발력이 센 좋은 화약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선생은 곧 나라에 화약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화약을 많이 생산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1377년 10월 나라에서는 선생의 제의에 의하여 《화통도감》이라는 화약 제조의 관리 기관을 새로 만들게 되였으며, 화약 제조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화통도감》의 책임자로 된 선생은 많은 화약을 만들어 내는 한편 연구 사업을 계속하여 새로운 대포도 발명해 내였습니다. 이리하여 선생은 이 위력 있는 무기로써 왜적들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선생은 자기가 발명한 화약 제조의 원리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화약 수련지법》이라는 과학 서적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최 무선 선생의 애국심과 불타는 과학 연구 정신을 본 받아 조국과 인민을 위해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조국 앞날의 과학자, 기술자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배워 나갑시다.

3 평영

① 숨을 들이 쉰 다음 물에서 미끄러지면서 기본 자세를 잡으며 숨을 내 쉰다.

숨 내 쉬기를 끝내고 팔 젓기 동작을 시작한다.

즉 손'바닥을 약간 바깥 쪽으로 돌리고 옆—아래 방향으로 팔을 벌리면서 몸이 물 우에 약간 나타나려 할 때에 머리를 들고 숨을 들이 쉰다.(다리는 힘을 주지 않고 곧바로 편다.)

② 젓기 동작을 하다가 팔이 어깨 선까지 왔을 때 이 동작을 끝내고, 팔꿈치를 굽히면서 팔을 앞으로 뻗칠 준비 동작을 한다.

다리는 굽히며 머리는 팔의 젓기 동작이 끝남과 함께 물에 잠근다.

③ 팔을 곧바로 앞으로 뻗치면서 다리는 뒤로 차기 동작을 하고, 머리는 물에 잠근 채 숨을 천천히 내 쉰다.

④ 다리의 뒤로 차기 동작으로 얻어진 힘을 리용하여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머리는 물에 잠근 채 숨을 내 쉰다.

척척 할아버지

일동—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나라에서 발명한 무연탄 가스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 왔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오냐, 공부들 잘 했느냐? 거 재미 있는 문제다. 우리 그럴 것 없이 이번에는 나와 함께 얼마전에 새로 건설된 흥남 무연탄 가스화 공장으로 가 보자. 거기 가서 공장 구경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잘 알 수 있을 게다!

일동—네, 네, 좋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예가 바로 흥남 무연탄 가스화 공장이다.

수상님께서는 일찌기 무연탄 가스화에 대한 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그것을 암모니야 합성을 비롯한 화학 공업과 인민 경제의 여러 부문에 쓸 것을 교시하시면서 《…석탄 가스화를 해결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막대한 리익을 주게 되며 전체 인민의 존경을 받는 애국자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수상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 나라 과학자들이 힘써 연구한 결과에 오늘 이와 같은 공장까지 건설되게 되였다.

철호—할아버지 무연탄 가스화란 무엇이나요?

척척할아버지 —무연탄 가스화란 말 그대로 무연탄을 가스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애—할아버지 이건 무슨 기계나요?

척척 할아버지—바로 그것이 무연탄을 가스로 만드는 가스 발생로라는 것이다.

영애—가스 발생로에서 무연탄이 어떻게 가스가 되나요?

척척 할아버지—먼저 무연탄을 가스 발생로 우 저장로에 넣고 거기에 산소, 수증기, 탄산가스 등을 아래로 불어 넣으면 불판 바닥을 통하여 일산화 탄소라는 가스가 나온단다. 저기 보이는 큰 통(땅크)이 가스를 저장하는 땅크란다.

철웅—무연탄 가스는 어떤 데 쓰이나요?

척척 할아버지—인민 경제의 여러 부문과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너희들은 암모니야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지?

철웅—예, 압니다. 화학에서 배웠습니다. 수소와 질소를 화합하여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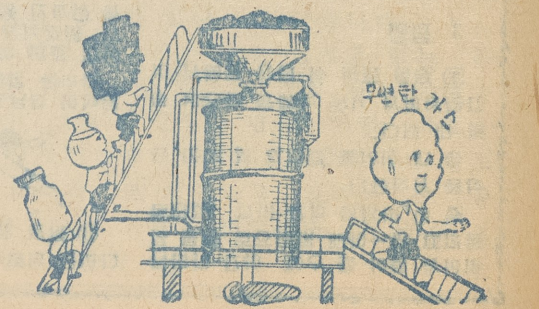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맞았다. 그런데 그 수소는 어떻게 얻느냐?

철웅—물을 전기 분해서 얻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옳다. 지금까지는 암모니야를 만드는데 쓰는 수소를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었다. 그런데 물을 전기 분해하는 데는 아주 많은 전기가 든단다. 그러나 무연탄 가스화에서 얻는 일산화탄소에 수증기를 작용시키면 아주 쉽게 수소를 얻는단다. 이렇게 얻은 수소에 질소를 화합시키면 좋은 암모니야가 된다. 례를 들면 암모니야 1 톤을 만드는 데는 1만 2천 킬로 왓트시의 전기가 든다. 그러나 1.7 톤의 무연탄을 가스화하면 이 많은 전기를 쓰지 않고도 1 톤의 암모니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무연탄 1.7 톤이면 1만 2천 킬로 왓트시의 전기를 절약하는 것으로 된다

일동—야! 대단하구만요.

척척 할아버지—암 그렇구 말구. 지금 본궁에 건설되고 있는 암모니야 공장에 무연탄 가스화를 도입하면 5억 킬로 왓트시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5 만 톤의 암모니야를 만들 수 있다. 5억 킬로 왓트시면 거의 독로강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량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나라에 이 얼마나 많은 리익을 주는 것으로 되느냐?

숙자—무연탄 가스가 쓰이는 데는 그 뿐입니까?

척척 할아버지—어째 그뿐이겠니? 너희들은 산성화된 땅에 어떤 비료를 많이 주는지 아느냐?

숙자—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줍니다.

척척 할아버지—맞았다. 무연탄을 가스화하면 뇨소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뇨소라는 것은 하얀 가루이며 물에 잘 녹는 것인데 여기에는 질소 성분이 많다. 그래서 뇨소는 산성화된 땅을 거루는 데도 쓰이고 가축들의 사료로서도 쓰인단다.

뇨소 1 kg이면 귀밀 22~25 kg와 같다. 이 뿐만 아니라 뇨소는 수지로 쓸 수 있다. 뇨소 1t이면 25 cm^3의 목재와도 같은 것이다.

일동—네? 뇨소가 목재와 같으나요?

척척 할아버지—허허 뇨소만 있으면 그것으로 수지를 만들어 물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좋은 모직 천과 꼭 같은 니트론도 무연탄 가스에서 얻을 수 있다.

숙자—할아버지, 그러니 무연탄을 가스화 하면 전기, 비료, 천, 쌀, 나무 할 것 없이 별의별 게 다 나오는 셈이구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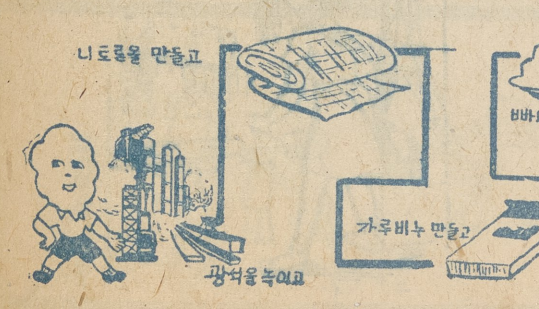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그렇구말구, 무연탄 가스로 쇠도 녹일 수 있구,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누도 만든단다. 례를 들면 무연탄 3.5 t을 가스화 하면 약 1 t의 비누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콩 5 t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무연탄을 가스화 하면 땅을 더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만약 도시에 무연탄 가스화를 한다면 지금 집집에서 쓰는 석탄의 7분의 1이면 넉넉하다. 그렇게 되면 가정들에서는 가스로 밥을 짓게 되니 편리해지고 도시가 또 얼마나 깨끗해지겠니.

일동—야!

척척 할아버지—그러기에 수상님은 무연탄을 가르쳐 《검은 금》이라고 하시지 않았겠니. 바로 이러한 《검은 금》이 우리 나라에는 얼마든지 있다.

이번 무연탄 가스화의 성공은 우리 나라에 얼마든지 있는 무연탄을 가장 쓸모있게 리용하여 우리 나라 공업의 밑천을 우리의 힘으로 더욱 튼튼하게 꾸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 향상시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일동—할아버지, 많이 배웠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잘들 가거라. 다음 날 다시 만나자.

이런 책을 읽읍시다.

☆독서—이것은 제 일 좋은 학습이다.

《글 읽는 법은 과정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질질 끄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너무 욕심부려 많이 읽으려 하지 말며 너무 빨리 읽어 넘기려고 서둘지 말라. 분량을 일정하게 정하여 매일 쉬지 말고 읽으라!》

(박 연암)

여름 방학간에 이 책들을 꼭 읽읍시다.

《어린 혁명가》 련속 그림책
《은호리 소년들》 (중편 소설)
《화학의 세계》 (과학 도서)
《어린 혁명 전사들》 (회상기)
《도끼 장군》 (동화)
《우리 시대의 소년들》 (실화)
《피마 기상대》 (과학 도서)

(동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에
문득 잠을 깬
혜숙이는 달려 가요
캄캄한 어둠을 뚫고…

젖어 드는 가슴 안에
붉은 넥타이 꼭 껴 안고
그는 달려 가요
토끼사로! 토끼사로!

이를 어쩌나요?!
갓 낳은 새끼 토끼
비'물에 잠겨
오들오들 떨고 있어요

와락 뛰여 가 조심스레 껴 안고
비'줄기를 헤치며 집에 온 혜숙이
귀엽게 귀엽게 등을 만지며
그는 밤을 새워 토끼 몸을 말려요

아 이런 밤 그에게
그 몇 번인지 아세요.
4 년을 하루 같이 토끼를 돌본
그에게서 이것은 한 토막 이야기…

평남도 순안군 순안 중학교 3학년 2반
김 영 희

(동시)

골목 길은 막혔지만

노래 노래 부르며 학교 가는 길
그 땐 정말 골목'길이였는데
어깨 동무 집으로 돌아 올 때엔
웬일일가 골목'길이 뚝 막혔으니

와룽와룽 부르도젤 왕범 같이 달려 들어
앞날 번쩍 산'더미로 흙을 안아 나르고요.
부르릉부르릉 자동차, 밝은 두 눈 환히 비쳐
길 내여라, 자갈 한 차 듬뿍 싣고 와요.

우리 길 잘못 왔나 뗑그렁 살펴 보니
웬일인지 외딴 집은 하나도 없고요.
저 하늘 기중기 무쇠 팔을 휘저어요.
벼전 닦기 신'바람 난 아저씨들 들썩여요.

당의 가르침 가슴마다 새겨 안고
천리마로 내달리는 건설장의 아저씨들
여기에도 행복의 주택 고지 우뚝 세워
낮새 벌써 골목'길이 뚝 막혔구나

이런 골목 암만이구 막힌들 어때요.
자동차 씽씽 달려 나가는
저기 저 훤한 큰 길로 가자.
노래 노래 부르며 힘차게 가자.

함흥시 반룡 공업 학교
2학년 박 명 건

(작문)

나의 책상

나는 나의 책상을 무척 사랑합니다.

날마나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오면 번쩍번쩍 빛을 내며 웃는 얼굴로 나를 맞아 주는 나의 책상을 볼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집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책상을 닦습니다. 나는 책상 닦는 걸레를 언제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아침은 내가 학교에 와 보니 책상 모서리가 무엇에 긁힌 홈'집이 나 있질 않겠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그처럼 아끼던 책상인 걸요. 순간 나의 머리에는 김 일성 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다시금 떠 올랐지요.

오늘은 비록 내가 앉지만 래일은 또 여기에 다른 사람이 앉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 말이지요.

나는 곧 목공실로 달려 가서 대패를 가져다 홈'집을 곱게 밀고 먹을 갈아 발랐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늘을 가져다 바르고 몇 번이고 문질렀지요. 그랬더니 홈'집은 깨끗이 없어졌어요.

나는 지금도 내 책상, 걸상 뿐만 아니라 동무들의 책상, 걸상들도 못 쓰게 된 것이 있으면 내 것처럼 고쳐 줍니다.

로동자 아저씨들이 우릴 공부 잘 하라고 힘들여 만들어 보내 주신 책상, 걸상을 나는 앞으로는 더 귀중히 아끼겠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와 나라의 재산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더 훌륭히 지키여 앞날의 씩씩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겠습니다.

자강도 화평군 화평 중학교
오 병 철

(동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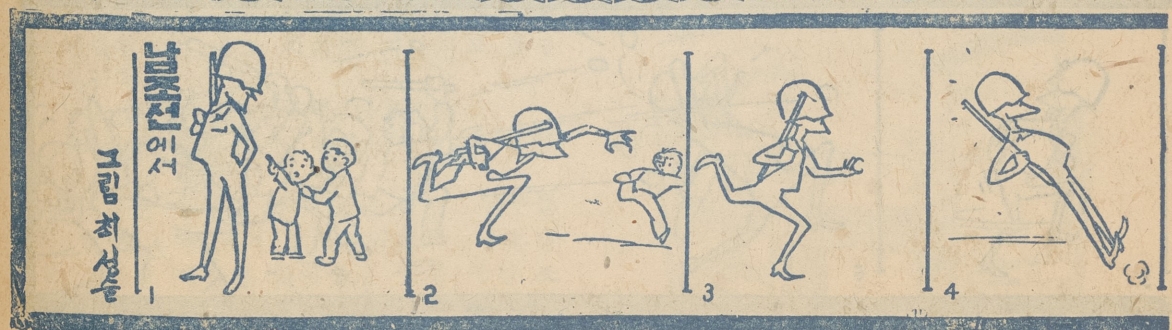
검은 금을 가득 싣고

칙칙 폭폭 칙칙폭폭
꼬마 기차 달려 가네
칸칸마다 담뿍담뿍
《검은 금》을 싣고서

우리 형님 캐낸 보배
여섯 개 고지 향해
강철 고지, 직물 고지 찾아
칙칙폭폭 달려 가네

나도 나도 크거들랑
공훈 광부 되여서
내가 캐낸 검은 보배
온 나라에 보낼테야

함북 온성군 온탄 중학교 인민반 4 학년
박 순 길

(동시)

원족 가는 날

북소리 둥둥
꽹과리도 울려라
오늘은 일요일 날
《원족》 가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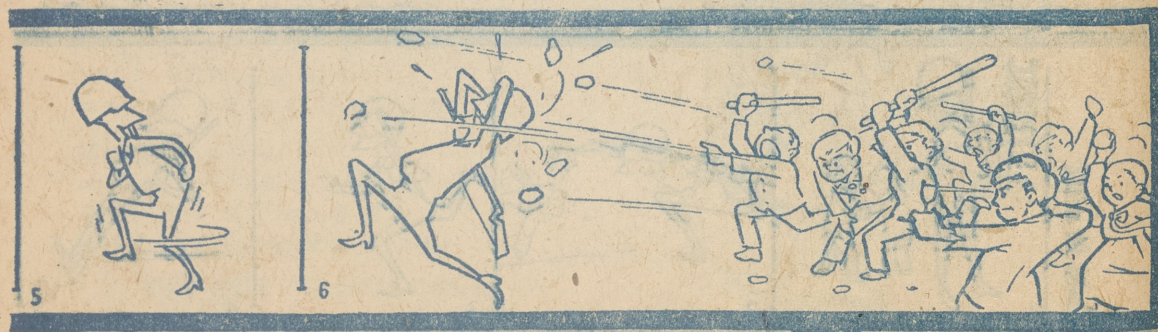
소년단 기 펄펄
하늘 높이 날리며
우리 모두 푸른 산
찾아 갑니다.

원수님 내여 주신
새 교복 입고
발걸음도 가볍게
활개쳐 가면
해'님도 귀엽다고
굽어 보아요.

어느새 산어귀에 다달았어요.]
포충망 채집통
꺼내 들고요
식물 관찰 곤충 잡이
흥겨웁지요

혁명가 드높이
노래 부르니
산도 쩡쩡
받아 불러요.

오늘은 기쁜 날
《원족》 가는 날
우리 모두
푸른 산 찾아 갑니다.

함북 무산군 성천 중학교
3 학년 김 정 수

우리 학교 공작실

기계들이 즐비한
우리 학교 공작실
스륵스륵 뚝닥
마치 소리, 톱 소리
방과 후면 공작실은
흥성거리죠.

배운 지식 넓혀 가는
우리 학교 공작실
우리 모두 신 나서
선반기를 돌릴 때면
지나가던 아빠 엄마
들려 보시죠.

계수기, 고성기
곱게곱게 만든 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더러 모두가
《꼬마 기술자》래요.

함흥시 성천구역 성동 중학교
한 용 걸

보이지 않는 통신원

소년단원 동무들!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나는 이번 호부터 동무들과 친하게 지낼 잡지 《소년단》의 《보이지 않는 통신원》이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소년단원들이 생활하는 곳이면 어데든 안 가는 데가 없게 될 것이예요.

그러나 동무들은 나를 만나 볼 순 없을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통신원이니까요. 그 대신 나는 동무들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리고 동식물들과는 서로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동무들의 책가방이나 호주머니 속에도 들어 갈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돌아 다니면서 소년단원들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나의 통신원 수첩》에 가득 적어다가 전체 소년원단들에게 알려 주게 될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이런 임무를 받고 공화국 각지 소년단원들이 있는 곳으로 려행을 하게 된 것을 정말 보람 있는 일로 기쁘게 생각해요.

책상이 하는 말

청진행 급행 렬차를 타고 첫 려행을 떠난 나는 평남도 순천에 첫 발을 들여 놓았지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여서 오고 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더듬어 가면서 읍에서 좀 떨어져 있는 평리 중학교에 찾아 간 나는 교실로 들어 가 의자와 함께 하루'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가 깨여 났을 때 책상과 의자들은 벌써 세수를 다 끝마치고 착한 소년단원들이 등교 하기만 기다리고 있질 않겠어요.

나는 의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그간 몸들은 튼튼 하였느냐?》고 물었어요.

《통신원 동무! 우리들은 이곳 동무들이 잘 돌보아 주어 모두 이렇게 튼튼해요.》하며 책상과 의자들은 이곳 착한 소년단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알려 그 모범을 본 받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통신원 동무! 이제 들어 봐요. 그리고 꼭 널리 선전해 줘요. 네!

우리 학교 7 분단 동무들은 우리 형제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언제나 정히 다루며 조금만 몸에 고장이 생겨도 제때에 고쳐 주군 해요. 특히 송 기선 동무는 마치와 못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몸에 탈이 나지 않도록 돌보아 주군 해요.

우리는 이런 착한 소년단원들의 덕분에 언제나 튼튼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나는 나의 《통신원 수첩》에다 《순천군 평리 중학교 단 제 7 분단 송 기선》이라고 써 넣었어요.

토끼들의 부탁을 받고

통신원 동무!

우리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가세요 네!》하고 2,000 여 마리의 토끼 형제들이 막 달려 와 붙어 잡는 바람에 제 1 호 토끼사에서 하루를 또 보내게 되였어요.

토끼 할머니는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 자기들을 무척 사랑하여 준다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부터 뚤룽뚤룽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통신원 동무! 우리 토끼사 마을을 한 번 돌아 보면 알 수 있을거예요. 어서 한 번 보아 주세요.》

나는 토끼 할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또 들었어요.

토끼우리 마을에는 사료 창고, 놀음터, 진료소들까지 만들어져 있었어요.

토끼우리는 비가 새거나 뿌리지않도록 지붕이 잘 씌워졌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깨끗하고 폭신한 깃이 깔려 있었어요.

내가 돌아 본 토끼우리 마다에서는 토끼들이 입을 모아 이곳 소년단원들을 칭찬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미처 수첩에 다 적어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하얀 어미 토끼가 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어느 날이였어요. 비가 내린다는 기상 예보를 들은 소년단원들은 아침부터 우리들의 먹이를 준비하느라고 야단이였어요. 그리고 습기가 스며 들세라 매 간마다 돌아 보고들 가지 않겠어요. 그런 뒤에도 이 날 몇몇 소년단원 동무들은 우리들을 돌보느라고 남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서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어요. 비'발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여 났을 때 벌써 검은 그림자들이 우리 토끼사 마을을 누비듯 왔다 갔다 하질 않겠어요.

캄캄한 밤이여서 키와 몸매를 보고 누구인가 알아 내려고 애썼으나 알듯알듯하면서도 딱이 알 수는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였어요. 바로 밤에 왔던 동무들이 다시 찾아 와서 문 앞에 가리운 가마니를 거둬 주었어요.

나는 그때야 그들이 조 순옥 동무네 반 동무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수첩에다 《평리 중학교 단 제 8 분단 조 순옥 동무네 반 동무들》이라고 재빨리 써 넣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신원 동무! 우리는 이런 착한 소년단원들의 손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형제들은 매일같이 늘어만 가요. 소년단원 동무들의 은혜를 우리는 기어코 갚을 것이예요.》라고 하면서 금년에 1만 마리의 형제로 자라서 털 모자, 털 외투를 소년단원들에게 선물 하겠다는 것이였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서 빨리 공화국의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알리고 싶어 나는 급히 편집부에 무전으로 알렸어요.

그럼 이번 호에는 이만 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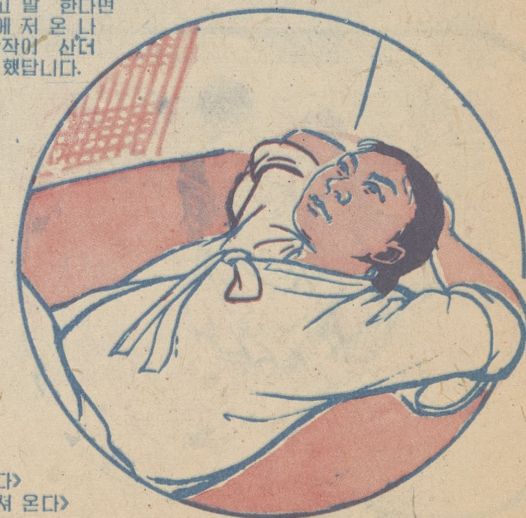
다음 호에는 어데로 가겠느냐구요? 그것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어데든지 갈것만은 사실이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곳을 찾아서 말이지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25 일'군 총각은 점심을 먹고 산으로 올라 가서 찍고 켜고 패면서도 그 들고도 이상한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님도 봐야되고 벙어리도 말해야 되고 앉은뱅이도 일어설 때가 오니 정신을 차려라》 이상한 때가 온다는 말인데 글쎄 어떻게 장님이 보며 어떻게 벙어리가 말하며 앉은뱅이가 일어나 뛰여 갈 수 있겠습니까.

26 웃동을 벗어 던지고 나무를 찍던 일'군 총각은 장수 바위에 걸터 앉아서 행복의 다락집을 짓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우줄 우줄 크는 집이였습니다. 네모 사방에 세운 열두자 기둥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와 진달녀와 함께 살며 씨름에서 상 탄 황소로 밭을 가는 공상을 하였습니다.

27 그러나 지주 령감도 그 아들놈도 일'군 총각이 이런 좋은 행복의 다락집을 동쪽 산상에 지어 놓고 살아 보군하는 줄 알턱 없었습니다. 주인 령감과 그 아들놈은 이런 일'군 총각을 보고 나무 장작을 겨우 여덟짐 밖에 져 오지 못했다고 욕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입을 가지고 말 한다면 하루에 져 온 나무 장작이 산더미만 했답니다.

28 그날 밤 일'군 총각은 너무 억울하여 자기 방에서 벼개를 베고 혼자 새우잠을 자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행복의 다락집을 밤새껏 지으면서 그런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진달녀와 행복스럽게 살 날을 꿈 꾸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행복의 다락집을 짓던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마을에는 난데 없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마 부산땅으로 침략자들이 들어섰다》
《섬 오랑케 놈들이 창칼을 휘두르며 쳐 온다》

29 일'군 총각은 난데 없는 소문을 들은 다음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 가다가 마을 사람들한데 주인 령감 맏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 글쎄 그녀석이 하는 말이 왜놈 수천명 쳐 와도 화살 한대 가지고 다 꺽으려 치겠다고 말 했어》 그 말에 여러 사람들이 웃으며

《아무렴요 될턱 있습니까? 주인님이야 활 잘 쏘는 명수가 아닙니까》하고 놀려 주었다고 했습니다.

30 실상 주인 령감 아들놈은 활 잘 쏘는 사람으로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냥 가는 것을 본 사람은 있어도 짐승을 잡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꿩 12마리에 노루 6마리를 쐈다고 거짓말 소문을 낸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어느 사람이 그게 정말인줄 알고

《정말입니가?》하고 물었습니다. 그 때 주인 령감 아들이 거짓말쟁인줄 아는 사람이

《정말이면 타는 말인데 거짓말이니 끌고 가자》해서 모두 웃었습니다

그 때부터 주인 령감 아들의 별명을 끌고 가는 《말님》이라고 불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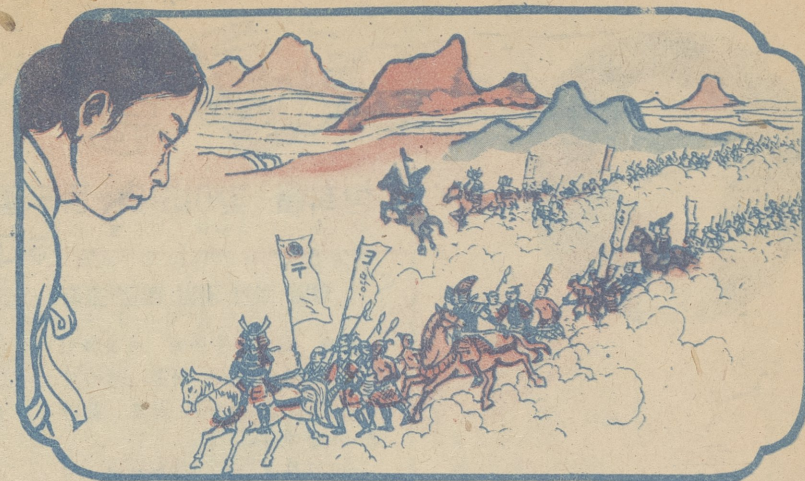
31 일'군 총각은 끌고 가는 말님이 싱거운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동쪽산 수풀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그 이상한 말들이 생각 나며 그 말이 오늘 아침을 가르친 말이 였다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러나 그 말 뜻을 안 순간 이미 그 때는 왔고 불기 시작한 회오리 바람 속에 자기가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였습니다.

32 문득 어머니와 진달녀의 얼굴이 떠 오르며 자기를 쳐다 보고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칼바람이 불어 온다. 창칼 바람이 불어 온다. 정신 차려라.》
《총각님 들었나요. 칼날 바람이 불어 와요. 창칼 바람이 불어 와요. 정신을 버쩍 차리세요.》

일'군 총각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근심 말아라 진달녀야. 창칼 바람이 불어 오면 막는 바람도 분단다. 행복의 다락 집아 서 있거라. 우리가 살 다락집아.》

33 그러자 어느 날 왜놈들이 평양성을 향하여 물 밀듯 쳐 들어 온다는 소문이 떠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성으로 쳐 온다는 말은 도끼메부산으로 쳐 온다는 말이고 그 말이자 자기 집으로 쳐 온다는 말이였습니다. 일'군 총각은 소문을 듣고 주먹을 떨었습니다.

34 수 많은 젊은이들은 원쑤들을 쳐 부시기 위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원쑤들이 달려 들자 그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린 소년들도 일어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는 벙어리가 별안간 말을 하기 시작하며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나 전쟁터로 달려 나갔답니다.

35 황해도 구월산이 몸을 흔들며 일어서더니 평양 대성산 청솔이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동강 물'결이 일어나 잠든 청류벽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어디서는 이름 없는 풀들까지 일어나 달려 드는 원쑤놈들의 발을 걸어 나꾸 챘다고 합니다.

36 도끼메 부산땅엔 입 없는 장수바위가 사흘 밤을 울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바위가 울면 신기한 장수들이 원쑤들을 치러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호 계속)

여름을 즐겁고 유쾌하게

방학을 맞이하며 동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

평양 남산 공업 학교 교장 로력 영웅 렴 경재

이제 초 하루부터 시작하여 8월 한달 동안은 여름 방학입니다. 여름 방학은 실로 즐거운 나날입니다.

이 기간에 야영 생활이며 혁명 전적지를 비롯한 견학이며 각 곳을 탐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방학 전 기간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습을 정상적으로 하며 위생 문화 사업을 잘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데 가서든지 하루 생활 일과를 옳게 조직하고 그 대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하루 생활 일과의 중심에는 학습과 다양한 소년단, 분단, 반 생활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위생을 잘 지키고 신체를 단련시킬 데 대한 문제며, 어머님의 일'손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아 줄데 대한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일과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고 조반전까지 세수며, 체조며, 청소며 기타 어머니의 일'손을 거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이라고 이런데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좀 휴식하고 오전 9시쯤부터 낮 12시 까지 숙제 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오후에는 적당히 오침을 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분단과 반에서 조직한 흥미 있는 독서, 유희, 오락 등 각종 놀음과 모임에 참가하면서 유쾌하고 명랑하게 휴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녁 6~7시 경에 또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드린다거나 혹은 집안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저녁 학습은 대체로 8시로부터 10시 사이에 하고 10시가 되면 자리에 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단 동무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데로 가나 옷차림이 단정하고 몸이 깨끗하며 례절이 밝은 학생이 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혼자서 함부로 강에 나가 목욕을 한다거나 동무들과 다툰다거나 부주의 하여 상처를 입는 일과 같은 사고들은 없어야겠습니다.

즐거운 여름 방학을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학습도 더 잘 하고 몸도 더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 명랑하고 유쾌한 학생이 되여 새 학기를 맞이 합시다.

호각으로 신호하는 법

나한테로 모엿	• • • 짧게 여러번
주의, 차렷!	—— 길게 한번
앞으로 갓!	•—• 짧게, 길게, 다시 짧게
멋었!	——• 길게 한번, 짧게 한번
누엇!	—• • 길게 한번, 짧게 두번

식물 표본 만드는 방법

☆ 모래로서 식물을 말리워 표본을 만드는 흥미 있는 방법.

1. 식물을 뜯어다가 곽 안에 넣고 거기에다 보드라운 마른 모래를 조심스럽게 뿌려 놓는다.
   그러면 모래는 식물의 각 부분에 골고루 배기여 식물에 있는 수분을 빨아 내게 된다.
2. 모래를 덮을 때에는 한꺼번에 덮을 것이 아니라 모래를 조금씩 조금씩 얇게 덮어야 한다.
3. 식물이 들어 있는 곽은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 놓아야 한다.
4. 8~9 일이 지난 뒤 식물을 모래에서 꺼내야 한다. (조심스럽게 꺼내야 한다.)
5. 식물을 꺼낸 후에는 거기에 약간씩 붙어 있는 모래알을 불어서 떨군 다음 밑에다 약간의 솜을 깔고 다른 곽에 넣어야 한다.
6. 모래로서 말리운 식물은 건조한 장소에 해'빛이 쪼이지 않게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만든 식물 표면은 마르지 않은 생생한 것처럼 보인다.

☆ 행군할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1. 행군할 때에는 코로 숨을 쉬시오. 그러면 갈증이 덜 납니다.
2. 물을 적게 마십시오. 그리고 휴식할 때에만 마십시오. 소휴식할 때에는 두세 모금만 마시고 대 휴식할 때에는 갈증이 가셔지도록 마십시오.

행군할 때 마실 물은 반드시 집에서 끓여 가지고 가야 합니다.

3. 하루 행군이 끝나고 쉬게 될 때에는 그냥 자리에 눕지 말고 잠간 휴식한 다음 몸을 깨끗이 씻고 자야 합니다.

행군 및 등산에 필요한 위생 지식

☆ 열사병과 일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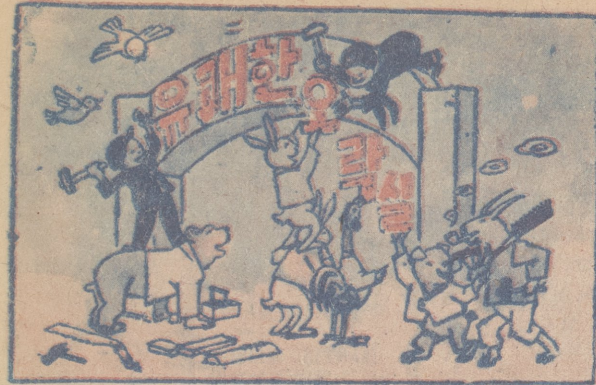
열사병과 일사병은 날씨가 무덥고 눅눅할 때나 좁은 방 안에 많은 사람이 가득 찼을 때에 발생한다.

열사병과 일사병에 걸린 사람은 머리가 몹시 아프면서 묵직해 진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며 구역이 난다. 동시에 얼굴이 붉어지며 혀와 피부가 마르면서 땀이 나는 것을 조금도 볼 수 없다.

맥박이 자주 뛰고 숨이 막히며 열이 높아진다.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수도 있다.

열사병과 일사병의 간단한 치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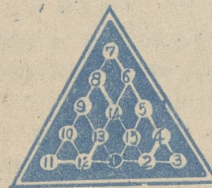
즉 행군시에는 대렬 밖에 내다 짐과 겉옷을 벗기고 머리를 약간 높이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 눕힌다. 그리고 랭수를 마시게 한다. (조금씩 자주 먹인다.) 그 다음에는 가슴과 머리에 찬물 찜질을 하며 전신을 젖은 수건으로 비비며 랭수 마찰을 실시한다.

병이 더욱 심하여 숨 쉬기 어려워 할 때에는 인공 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머리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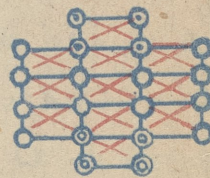
그림과 같은 판과 14개의 말을 준비한다.

다음에 그림과 같이 동그라미에 말을 배치한다. (검은 곳만 비워 둔다)

말쓰기는 다른 말을 하나씩 뛰여 넘어 그 다음 빈 자리로 옮기는데(한칸씩)뛰여 넘은 말은 놀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하여 제일 적은 회수(13회)로서 마지막 한 마리만 남기고 전부 떨어지도록 머리를 써야 한다.

☆ 말옮겨 놓기

ㄱ. 노는 인원—2 명

ㄴ. 준비할 것—그림과 같은 판과 여덟 개의 말 (각각 4 개씩 다른 색으로 된 것)

ㄷ. 말의 배치—같은 색을 가진 각각 4개의 말을 그림의 량쪽 ◎ 지점과 ⊙지점에 놓는다.

ㄹ. 노는 방법.

한 사람은 붉은 선을 따라서만 말을 옮기며, 다른 한 사 사람은 퍼런 점선을 따라서만 말을 옮길 수 있다.

말은 '앞' 뒤 또는 옆으로 한간씩만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말이 놓인 자리에는 덧 놓을 수 없다. 만약 어느 한편의 말이 어느 하나도 옮겨 놓을 수 없게 되면 상대편이 한번 더 옮겨 놓는다.

이리하여 자기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4개의 진지를 먼저 채우는 편이 이긴다.

수수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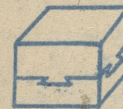
△ 붉은 대문 안에 흰 돌담, 흰 돌담 안에서 부채질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 사흘만에 나서, 열 닷새 자라서 서른날만에 죽는 것이 무엇인가?

△ 온 종일 한 팔 들고 짐 나르는 것이 무엇인가?

(해답은 다음 호에)

⊠ (알아 마치세요)

《함의 비밀》

영남이는 공작실에서 그림과 같은 함을 만들었어요. 보는바와 같이 함은 우로도 옆으로도 열지 못하게 되여 있어요. 영남이는 어떻게 설계를 하였을가요?

(해답은 다음 호에)

(속 담)

☆ 두 손' 벽이 맞아야 소리 난다.
힘을 합해야 일이 잘 된다는 말.

☆ 시작이 반이라.
일이란 벼르고만 있지 말고 결단성 있게 시작하면 곧 끝낼 수 있다는 말.

☆ 쇠 뿔은 단김에 빼라.
일은 손 댄 김에 당장 해 치우라는 말.

☆ 강물도 쓰면 준다.
풍부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쓰지 말고 아껴 쓰라는 말.

(전호 해답)

⊕ 《흥미 있는 수 풀이》의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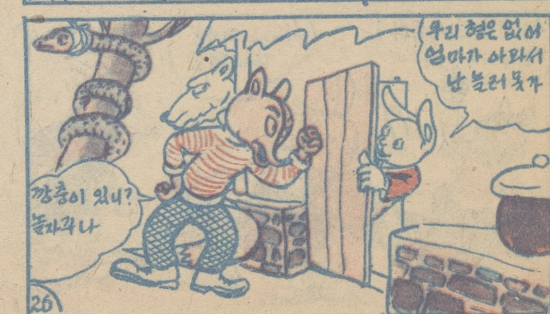
다음의 순서로 수' 자를 비여 있는 자리로 옮기면 된다.

2. 6. 5. 3. 1. 2. 6. 5.
3. 1. 2. 4. 8. 7. 1. 2.
4. 8. 7. 4. 5. 6.

호 《칸 만들기》의 해답

⊕ 《방향 바꾸기》의 해답

그림 1의 접선은 문제에 제시한 모형입니다. 여기에서 접선 1 2 3. 을 각각 떼여 화살표 위치로 옮기면 나비의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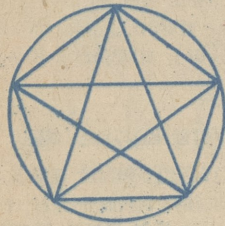
그림 2는 방향을 바꾼 나비의 모형입니다.

모양 그리기

연필을 떼지 말고, 한번 간 자리를 다시 가지 말고 다음의 모양을 그리라.

간이 정거장에 화물 렬차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간이 정거장에는 본선 외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짧은 간선이 있습니다.

화물 렬차 뒤로 방금 려객 렬차가 달려 오는데 길을 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선은 화물 렬차의 길이가 다 들어 갈 수 없는 선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려객 렬차의 길을 비켜 주어야 하겠습니까?

☆ 4호 현상 문제 해답

우리 나라의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알을 낳을 시기)에 민물에 올라 오는 물'고기는 연어, 송어, 은어, 숭어 등이며 민물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바다로 내려가는 물'고기는 뱀장어이다.

☆ 4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남 성천군 화전 중학교 김 광운
평남 성천군 신성천 중학교 주 호철
함남 정평군 부평 중학교 김 제순
함남 신흥군 상원천 중학교 림 기린
함흥 초등 학원 신 춘자
함남 덕성군 인동 중학교 김 득선
함흥시 마전 중학교 정 의진
함북 경원군 성내 중학교 최 기룡
황남 강령군 오봉 중학교 김 용수

★ 다음호에는 ★

아동단원들의 투쟁을 내용으로한 《나어린 정찰병》을 비롯하여

8.15 해방 17 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제도의 행복을 말해 주는 혁명 투사, 로력 영웅, 과학자들의 글과 모범 분단 동무들의 생활을 그린 《나란히 선 두 분단》, 《친한 동무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 있는 련재 만화 《도끼 장군》과 련재 만화 《원쑤 갚은 깡충이》, 《바다 속의 비밀을 찾아서》가 계속되며 《독자란》, 《유쾌한 오락실》에도 더 재미 있는 것들이 소개됩니다. 다음 호를 기다려 주십시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 7 호 (총 153호)

편집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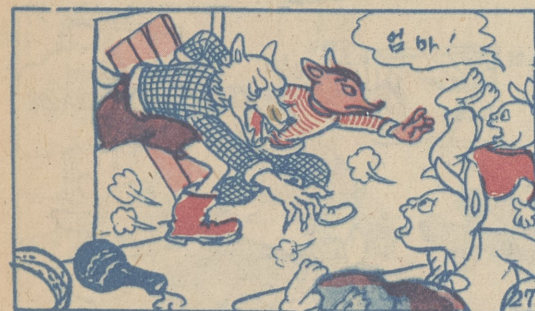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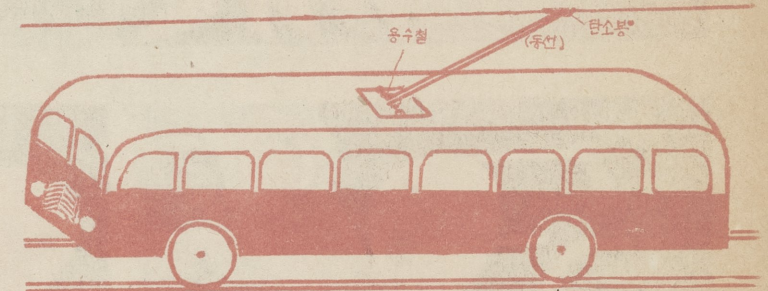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230391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어린 기술자들)

움직이는 전차

강 우근

홍 성록

평양 룡남 중학교 물리 연구 소조원들은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직접 모형을 만들어 실험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

물리에서 전동기의 원리와 그의 리용을 배운 이들은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직접 움직이는 전차를 만들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다지고 있다.

그럼 이 곳 동무들이 만든 꼬마 전차를 다음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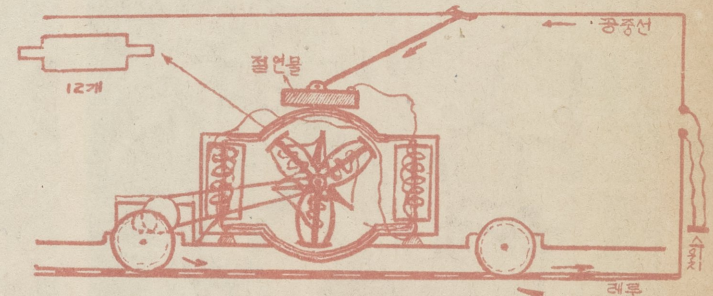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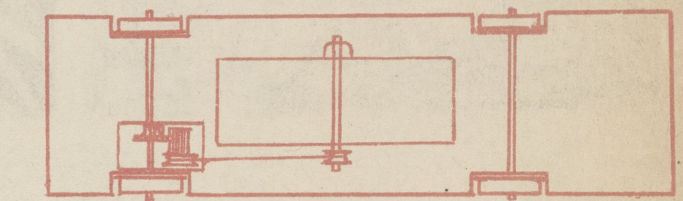
(1) 전차를 만드는데 든 자재.

얇은 철판(통조림통을 리용)
강선, 동선, 장난'감에 달린 치차, 황동판, 코일(0.2 ㎜ 정도 직경을 가진것 300 g)고무줄, 납 등이 필요 한다.

(2) 필요한 도구.

소형 모루, 바이스, 함석 가위, 송곳, 줄칼, 납땜인두, 쇠톱, 청강수, 눈'금자, 마치, 뻰찌.

(3) 만드는 방법.

㉠ 전동기를 만드는 방법은 략한다.
※회전자의 한극에 500~600 회 정도씩 감는다면 50~60 볼트의 전압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 전동기와 치차부분을 고무줄로 연결시킨다.

㉢ 코일선의 연결은 그림(3)과 같이 한다. (붉은 선)

㉣ 회로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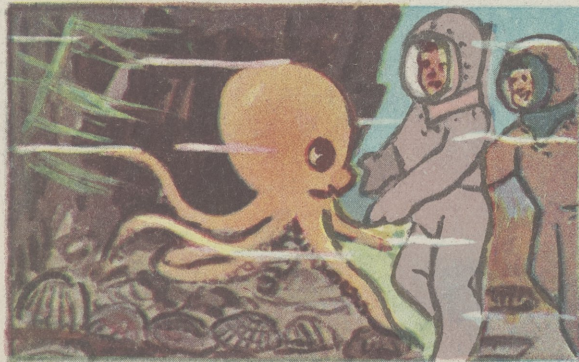
그림(3)에서와 같이 스위치를 놓으면 전류는 공중선으로부터 접촉대를 지나 전동기로 들어가며 차체와 바퀴를 지나 레루를 따라 흐르게 된다.

(4) 이 전차 모형은 반드시 50~60 볼트의 전압을 사용 해야 한다.
※전동기의 크기에 따라 코일을 감는 회수가 많으면 직접 련결 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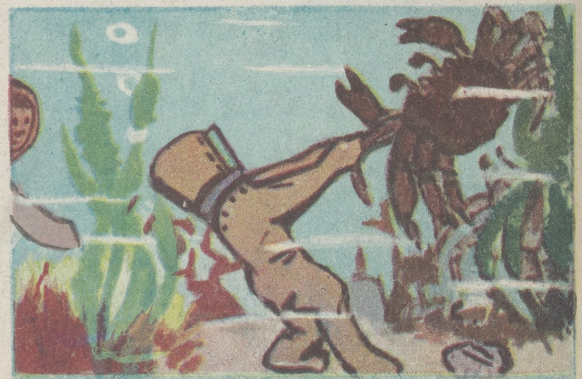
(5) 무궤도 전차 모형을 만들려면 공중선을 두 줄 느리고 회로를 변경시키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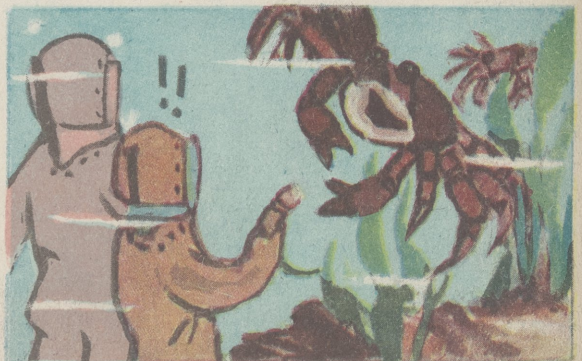
평양 룡남 중학교 물리
연구 소조 집체작.

련재 만화

1) 문어-살려주니 고맙습니다. 어서 우리 집에 잠간 이라도 들려 주십시요

2) 문어-이것이 우리 집이라우
철이-무슨 조개껍질이 이렇게도 많을가?
문어-네! 제가 조개를 잡으면 질식시켜 속을 까 먹고 내버린 것이지요.

3) 용이-이거 굉장한 걸!
문어-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이건 조개찬이고. 이건 소라찬이고 자 어서 드십시요.
철이-문어는 못 먹는 것이 없군 그래.

4) 용이-이게 무슨 소리야!
문어-용소하십시요. 저소리는 자게와 털게들이 무리를 지여 다니면서 서로 부디시는 소리라우.
애익 참 귀치 않게 고아 대는군!

5) 철이-거! 대단한 소리를 내는걸!
용이-어부들은 탐지기로 이 소리를 찾아 내여 게 잡이를 하거든!

6) 철이-앗. 발이 떨어졌오!
자게-걱정할 것 없수다. 새발이 또 돋아 나올레니까?

7) 용이-참. 자네는 기특한 재간을 가졌네구려!
자게-그러니. 우리는 위협에서 살아 나군 하지요.
용이-사람들도 자게처럼 새 발이 솟아 나게 할수 없을가?

(다음 호에 계속)